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쁨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높인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금주의 기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신 이 미국이 건국념을 좇아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대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모든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소원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39호 2013년 6월 29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미 독립기념일 237주년... 상징, 노래에 담긴 하나님의 보우하심 의미 소개

1776년 7월 2일 미국 국회는 대영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이를 후에 독립선언문의 초기 문서에 서명했다. 나흘 후 7월 8일 국회의원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그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유의 종에는 이 독립선언식에 걸맞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건국이 된 미국은 세계 최초로 귀족 평민이 없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가 됐다. 미국 건국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전제왕정이 한 단계 한 단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전 세계 민족은 수 천 년간 동족간의 노예제도를 고수해왔으나 미국은 자국민의 피를 흘려 타민족을 노예제도를 해방시켜왔다. 그 이후 전 세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시작했다.

유럽 각국을 포함해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으며,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한 세계의 인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 미국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며, 일인당 자선기부금이 가장 많은 나라다.

나라가 건국된 후로,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거듭되는 전쟁과 혁명과 혼란을 치르고 있으나, 미국에는 안정과 축복이 있어왔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미국의 독립의 기반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제 2대 대통령 존 아담스(John Adams)는 이렇게 말했다. 아담스는 이미 독립선언이 선포된 바로 그날, 미국 독립의 깊은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위대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담스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기독교적 축제의 날이 될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미국은 세계 최초로 귀족 평민 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가 됐다.

민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날이며, 국민들은 그 분께 헌신을 결단한 날이다. 이와 같은 미국 독립의 기반은 건국을 주도한 국부들의 정신이었다.

미국 독립에 기여했던 존 퀸시 아담스(John Quincy Adams)는 1887년 그가 69세가 되던 해 7월 4일 독립 기념일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 미국인들은 독립 기념일을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중요하게 기념합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탄생은 구세주의 탄생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탄생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는 시점이었습니다. 미국의 독립 선언문은 구세주가 명령하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이었으며, 사상 최초로 기독교 원리에 의거한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따라서 남북전쟁 참전용사이고 후에 벨몬트 주의 조그마한 에피스코팔 교회의 로버트(D. C. Roberts) 목사는 미 독립선언 100주년인 1876년 7월 4일 교인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찬송(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을 작사했다:

능력의 손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모든 아름다운 별빛으로/우리들을 인도하신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하늘을 꿰뚫고 찬란하게 빛나는 이 세상을 허락하신/당신의 보좌 앞에 감사의 노래를 올립니다.

당신의 사람이 과거에 우리들을 인도하셔서/이 자유로운 땅으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우리의 통치자요, 보호자요, 안내자가 되시어/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게 하시며/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죽음과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서/당신의 강한 손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당신의 참된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 자리하게 하시고/당신의 풍성한 자비가 우리들을 평화로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고된 길을 갈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어두운

밤에서 이끌어 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우리들의 삶을 당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채우셔서/영원히 당신을 영광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God Bless America)” 역시 국가 경축일에도 부르며, 9.11 테러가 남긴 폐허 위에서 재건을 다짐하는 주먹을 불끈 쥔 때도 이 노래를 부른다. 그리움이 경쾌하고 발랄하면서도 씩씩한 이 노래를 미국인은 현충일에도, 독립기념일에도 함께 부르며 그들의 단합된 애국심을 재확인한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메리카의 다른 말은 바로 미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이다. “God Bless America”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다.

(3면으로 계속)

에베레스트에도 성경은 보급된다!

선교전문단체, 족 복음서부터 시작... 네팔 선교현장 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위치해 있는 힌두왕국 네팔은 오래 동안 공산주의자들과 힌두교인들 사이의 투쟁이 얼룩져 있는 나라였다. 그리고 이 와중에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자들과 힌두교인들로부터 핍박과 차별을 받아왔다. 수년 전 오래된 왕정이 무너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헌법이 마련됐지만 공산주의 정당이 집권을 해 기독교인들의 미래는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들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상을 향한 성경(Bibles for the World)’ 선교회의 푸다이테(Mawi Pudaite) 대표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네팔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갔다고 말했다. 네팔은 공식적으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세속주의 헌법을 가진 민주국가이고,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이 종교 자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Kathmandu)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이사이 먼달리’(Isai Mandali=크리스천교회)교회와 세상을향한성경선교회는 카트만두의 5백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 족 복음서를 배포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선교회와 교회는 최소 3백 만권의 요한복음 족복음서를 나눠주고 그 다음 복음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시편과 잠언 그리고 신약성서가 있는 성경을 통해 양육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Kathmandu)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이사이 먼달리’(Isai Mandali=크리스천교회)교회와 세상을향한성경선교회는 카트만두의 5백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 족 복음서를 배포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선교회와 교회는 최소 3백 만권의 요한복음 족복음서를 나눠주고 그 다음 복음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시편과 잠언 그리고 신약성서가 있는 성경을 통해 양육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세상을향한성경선교회는 또한 네팔의 목사들과 복음전파자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씨 뿌리는 자 세미나(Seed Sower’s Seminar)’를 개최해 성서를 이용한 복음 전파 훈련을 제공했다. 세계 최고봉이 있는 네팔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큰 꿈을 꾸고 있다고 세상을향한성경선교회의 푸다이테 대표는 말했다.

2010년 개정된 세계기도정보는 네팔의 전체 인구 2,985만 명(2010년)의 75%가 힌두교인이며, 그 다음으로는 불교도가 16%를 차지하고 기독교인 비율은 2.8%로 기록했다. 미국 연구 단체 퓨포럼이 실시한 2010년 연구조사도 네팔 전체 인구 2,996만 명(2010년)의 80.1%가 힌두교인, 10.3%가 불교도, 4.6%가 이슬람교도이고 기독교인 비율은 0.5%라고 발표했다. 미국정부의 정보기관 CIA가 운영하는 사이트(The World Factbook)는 네팔의 전체 인구 3,043만 명(2013년)이며, 2001년 인구 조사(Census)의 종교 통계 결과가 힌두교 80.6%, 불교 10.7%, 무슬림 4.2% 라고 소개했다.



2면
킬링필드 현장에 파는 하나님의 희망!



3면
소그룹목회, 리더 방치가 가장 큰 위험!



7면
제2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연인 김만형 목사(친구들교회)



13면
은혜의 땅 에베레스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영욱 전도사(수곡미술선교회 회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3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3년 9월 6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3년 9월 7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3년 9월 9일(월) - 11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 학 감 / 교 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간절한 기대와 소망



최창섭 목사 (에베레셀 선교교회)

지난 6월 초 한인교계신문의 데스크칼럼 주제는 "오늘의 교계에 고함"이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최근 각 교단 총회에서 일어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목회자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의 결함, 예배와 삶의 불일치 등에 대해 열거하면서 회복에 대한 간절함을 주문한 글로 많은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각자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방법이 문제다. 기독교 지도자들로서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질서를 따라 행했다면 고성, 몸싸움, 갈라짐은 면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리고 처음으로 총회에 참석하는 젊은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어 감동을 주지 않았겠는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게 되고, 서로 간에 큰 상처를 주고받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렸다. 물론 목사라고 완전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기본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을 폭력있게, 질서있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않으면 더 이상 감동을 줄 수 없고 다른 이들의 동의도 이끌어낼 수 없다.

바울서신을 보면, 바울이 사역의 전략과 확장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사역자의 바른 신앙과 인격, 삶의 모습, 영적훈련이었다. 그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환경적 장애물, 인간관계의 장애물,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출육, 건강, 장수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리스도인, 사도로서의 신앙인격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이런 고백을 했다.

첫째로,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바울은 사역에 못지않게 인격,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스도인 모두도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 인격,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주 오래 전에 어느 분이 쓴 글이 좋아 인용하며 추가해 보았다.

"우리가 가난을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문벌이나 학벌이 좋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진실치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용모가 아름답지 못해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럽고 추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체구가 왜소하다고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좁쌀같이 작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교인 수, 예배당 건물이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정과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인간의 인간됨은 그의 자량과 부끄러움이 무엇이나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부끄러워하는 우리는 아닌가?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남이 모르는 것 나 자신이 더 잘 안다. 또한, 나의 아내, 자녀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이웃들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몸부림쳐야 한다.

둘째로,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사도가 되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노년까지 모든 일에 담대하였다는 것이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죄나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물질문제, 이성문제에 있어 깨끗해야 할 것이다. 신앙연료, 목회경력을 자랑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은 성화낸 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주어진 삶과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해군사관학교 졸업 시 제독이 그에게 "귀관은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물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그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평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한다.

셋째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주님만 존귀하게 하는 삶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삶"은? 내 몸(행)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주변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삶과 사역을 통해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만 높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의 복음을 통한 영혼구원과 교회개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갈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부름을 받은 자들로 이런 기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킬링필드 현장에 피는 하나님의 희망!

월드,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대학살 탈출 크리스천여성 사역소개

영화 "킬링 필드"(The Killing Field)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에 의한 200만 명 대학살이 자행된 지 40여년 만에 크메르 언어로 성경이 대학살 현장에 보급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공산당 크메르 루즈는 1975년에서 1979년 사이에 거의 2백만에 이르는 캄보디아 대부분의 지식인들을 살해했는데, 캄보디아 기독교인 말리는 이 학살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학살을 피해 캄보디아를 탈출한 말리는 후에 미국에 살게 됐고, 현재 크메르 언어로 된 성경을 녹음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68세의 말리는 하나님께서 크메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남겨두기 위해 자신을 살려 주셨다고 믿고 있다고 월드(World) 지는 보도했다(Giving voice to sorrow and hope: A Cambodian refugee saves her tale of survival under the Khmer Rouge into an audio ministry reaching thousands in her homeland).



캄보디아의 남부 도시 캄포트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캄보디아인처럼 불교 신자로 성장한 말리는 어린 시절 이모 밑에서 하녀처럼 일하며 공부를 해 여자로서는 몇 명이 되지 않는 대학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됐다. 포놈펜에 있는 정부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으며 소수의 엘리트 계층으로 살아가던 말리는 1975년 크메르 루즈가 집권하면서 큰 불행을 겪게 됐다. 크메르 루

가 태국 국경에서 체포됐는데, 그 와중에 두 아들과 헤어지게 됐다. 말리는 UN난민 수용소로 보내졌지만 두 아들과는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말리는 수용소에서 텐마크에서 온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인이 됐다. 기독교인이 된 이후 말리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두 아들을 찾았고 두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했다. 1980년 말리와 두 아들은 미국에 발

오고 있는데,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의료 사역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많은 교회는 가정 교회다. 하지만 수도 포놈펜에는 큰 교회들도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약 300명이 모이는 새생명(New Life)교회이다. 말리는 미국에 있을 때 캄보디아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캄보디아 여성은 자신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구약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학살 피해 있었던 UN난민수용소에서 기독교인 돼 캄보디아어 성경녹음 사역...공산학살정권이 기독교 개방시킨 셈

즈 정권은 집권 후 교육을 받은 모든 이들을 자유 시장 경제에 오염됐다고 간주해 2백만 명에 이르는 지식인, 전문가, 소수 부족민들을 학살한 것이다. 정권의 망명을 피해 북서부 산악 정글 지대로 피신한 간 말리와 그녀의 가족은 굶주리는 생활을 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진 말리의 남편은 죽었고, 그녀의 여동생은 학교선생이라는 사실이 발각돼 총살을 당했다. 말리의 모친도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 말리는 살아남기 위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두 자녀와 함께 역경을 헤쳐 나갔다. 크메르 루즈가 세력싸움에 몰두하면서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이용해 말리는 두 아들과 함께 캄보디아 탈출을 시도했지만 군인에게 발각돼 죽을 운명을 맞게 됐는데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다. 후에 말리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셨다고 믿었다. 그 후 말리는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탈출을 감행하

을 단게 됐고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정착했는데, 롱비치는 현재 5만 명의 캄보디아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다. 1988년 말리는 크메르어 성경 녹음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미국에 온 지 12년 후 말리는 조국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캄보디아로 돌아가 선교사를 위한 번역 일과 고아원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캄보디아의 기독교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지만 현재 캄보디아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 나이든 캄보디아인들은 불교를 고수하고 있지만, 크메르 루즈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들은 불교에 대한 신앙이 많이 식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리는 말했다.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기독교인들은 다수 종교인 불교도로부터 종종 핍박과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과 동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캄보디아로

호소했다. 말리는 이 여성에게 자신이 녹음한 크메르어 성경을 들려주었고, 이 여성은 친구와 함께 말리가 녹음한 성경을 듣고 울면서 매우 고마워했다. 말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학살에서 자신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캄보디아인들이 듣도록 돕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 성경 녹음을 지속해 성경 대부분의 녹음을 끝내게 됐다. 보안을 위해 본명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말리는 자신의

있다. 말리 자신도 난민수용소에서 기독교인이 됐으며, 학살을 피해 미국에 정착한 많은 캄보디아 난민들도 미국에서 복음을 듣게 됐다. 크메르 루즈 정권 이전에는 캄보디아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크메르 루즈 정권 치하에서는 공산주의가 캄보디아 사회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캄보디아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리는 말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 수시 입학 가능
-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소그룹목회, 리더 방치가 가장 큰 위험!

스몰그룹닷컴, 빌 도나휴, 리스 로빈슨 목사 “소그룹” 훈련 원리 소개

교회를 소그룹 중심으로 재편하는 초기에는 목회자는 소그룹 리더가 될 사람을 발굴하고 그들을 훈련하는데 가장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교인 중에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통해 소그룹 리더로 세우는 것은 어쩌면 눈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다. 그 결과로 리더가 세워지고, 그들이 소그룹을 맡아 이끌도록 함으로써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때, 목회자는 자기 노력의 결실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소그룹 리더가 세워지고 교회가 소그룹 중심으로 체질개선을 이뤘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잘 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를 소그룹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그 세워진 소그룹들이 잘 유지, 보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지, 보존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으며, 소그룹도 마찬

미 소그룹을 맡아 인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소그룹을 맡아 잘 이끌어왔다고 해서, 내버려두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리더 훈련은 초보 리더들뿐 아니라 어느 정도 소그룹을 경험한 리더나 숙련돼서 소그룹을 익숙하게 인도하는 리더에게도 필요하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회는 끊임없이 역량 있는 리더들에게 활동할 장소를 제공해주어야만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어야 한다.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과 재미가 넘치는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

‘전통적 결혼수호법안’ 위해 금식기도를!

남가주교계 4개 단체 연방대법 판결 앞두고 한인 참여 요청



남가주교계, OC교협, JAMA, 미주성서화운동본부 등 4개 교계단체는 남가주교협사무실에서 전통적 결혼수호법(DOMA)과 전통결혼을 지지하는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8’이 지역질서 있도록 함께 금식기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가주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OC)기독교교회협의회, JAMA, 미주성서화운동본부 등 4개 교계단체는 지난 18일 오후 5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혼수호법(DOMA)과 전통결혼을 지지하는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8’이 위헌이 아니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미주한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끼 이상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는 동성애자 결혼법 관련 두 가지 케이스 심의 중에 있다. 남녀의 결혼만 인정하는 DOMA(Defense of Marriage Act, 결혼수호법), 캘리포니아의 전통결혼을 지지하는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8’이다. 즉 결혼수호법을 계속 헌법으로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폐지시킬 것인지, 또한 2008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투표해 통과시킨 전통결혼을 지지하는 ‘프로포지션 8’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무효화 시킬 것인지 결정한다. 연방대법원은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판결을 하게 된다.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협 회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관인 남녀가 연합해 가정을 이루는 제도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 목사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도는 최후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진 목사는 “잘못된 가치관의 영향으로 결혼수호법이 위헌이 된다면, 전통적인 남녀의 결혼 개념이 무너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gender)’에 연결되는 건강한 남녀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경명 목사(OC교협 회장)는 “동성애자의 양성화, 합법화는 단지 시대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을 당당하게 펴박하고 쫓아내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물증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 교회 이기주의에 함몰돼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진리에 대한 외침이 없다면, 그래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친동성애 쪽으로 결정된다면 결국 그 책임은 교회지도자들에게 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동적 외침을 주장했다.

박성규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의장)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방향감각을 잘못 잡으면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친동성애법안 등은 결국 미국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미국 전역에 불고 있는 자연재해는 단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라 말했다. 강순영 목사(JAMA 부대표)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파급효과를 지적했다.

DOMA 법안은 1993년 하와이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초로 제출했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대법원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정의의 범적으로 보호받도록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으로 거쳤다.

DOMA는 당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85:14, 342:67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회와 대법원에 의해 통과되고, 1996년 9월 21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결혼제도를 헌법으로 정의한 역사적 사건이다. 특별히 ‘DOMA 3’ 조항에 따르면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만을 인정하며, 이렇게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법에 의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소그룹리더 발굴 양육 훈련...리더 유지 보존 필수

훈련은 실제적 즉각적 체험적 감동적 집중적으로

가지이다. 목회자는 교회가 소그룹 체질로 변화되었고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제 저절로 각 소그룹이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구조를 세우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 보존, 운영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소그룹 구조를 유지, 보존,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그룹 리더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재훈련해야 한다. 물론 그들은 이미 재훈련, 사역훈련 등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 상당한 훈련을 마친 상태이며, 이

잘 알 수 없다면 그들에게 물어 보면 된다. 가능성 있는 리더들은 대부분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을 리더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 뿐 아니라 사역 전 기간에 걸쳐 그들을 후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교회의 가장 커다란 비극 중 하나는 바로 숙련된 리더들이 정체상태에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숙련된 리더들이 새로운 수준에서 계속된 도전을 받지 않으면, 또 그들이 다른 리더들의 리더로서 경험과 관계들을 접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을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 교

리더들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지는 각 교회의 형편과 각 리더들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훈련은 첫째, 반드시 실제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한다. 리더들에게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를”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려 해서는 안 된다. 리더들이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둘째, 체험적이고 감동을 주는 훈련이어야 한다. 소그룹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 내용이 지루하지 않도록,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이미 열심히

다. 이미 훈련을 받고 리더로 세워진 사람에게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실제적이고 흥미로운 훈련 하나를 집중적으로, 리더들의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리더들에게는 과도한 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결론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그룹 리더들의 영성 계발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소그룹 리더들이 성실하고 기술적으로 자기에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이 세 단어에 미국의 건국 철학과 미국의 민주주의의 철학과 미국인의 경건한 신앙이 담겨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God Bless America” 사상에서 출발한다.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는 사람의 자유를 하나님이 보장해주시는 사상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성경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한다. 미국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러기에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는 성경에 손을 얹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심부름꾼이 되기를 헌신하는 취임 예배로 시작된다. 이점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사상은 대단히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미국 청교도의 비전을 이룬 또 하나의 성경구절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

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룩한 도시로서, 미국은 그 사명을 받아들인 기독교 국가가 됐다. 따라서 “From the mountains, to the prairies, To the oceans, white with foam”라는 가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의 울타리를 넘어 시원하게 오대양 육대주로 확장돼야 한다는 열망이 담겨져 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까지 확장된다.

결론으로, 237년 전에 세상에 천명된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이

러한 모든 의미들이 확연하게 명시되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다...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



조용기 목사



베데스다 대학교

BETHESDA UNIVERSITY OF CALIFORNIA



1.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 과정(미국 1기, 한국 12기)

4D: Fourth Dimensional Advance Leader Training은 기독교 리더들이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산업 및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 교회 지도자 리더들이 되도록 조용기 목사의 4차원 영성을 교육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정개요

- 1) 교육대상 *기업체회장, 사장, 임원급 이상
*국회의원 및 정부 각 기관 고위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기독교관련 종교 및 선교단체 임원급이상
*교파를 초월한 담임목사, 목회자
*교회 직분자(장로, 권사 외)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자
- 2) 교육기간 *7월~8월(2개월 온라인 강의/주 1회씩 6회)
- 3) 과정운영
4차원영성 이론강의: 4차원 영성 개념 및 영적인 원리(생각, 믿음, 꿈, 말)에 관하여
4차원영성 실천강의: 기독교 인생관 및 리더십 분야
- 4) 교육장소 *하워드존슨 호텔 (플러튼) 1층 세미나실

- 5) 지원서 *소정양식 1부, 반영합편 사진 2매
- 6) 전형방법 *서류전형
- 7) 4차원영성최고 지도자과정 11기까지 442명 졸업
주대준(KAIST 부총장), 성시영(KBS 아나운서), 김성동(전국회의원), 조대숙(변호사, 전 국회의원), 조성민(한양대교수), 김중환(국회의원), 김경택(SBS예술평단장), 이현재(국회의원), 손인준(국회의원), 고승덕(현변호사,전국회의원), 이양호(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동환목사(베데스다대학부총장), 이태근 목사(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최명우목사(순복음강남교회당회장), 전호윤목사(여의도순복음상복교회), 송영준목사(성산순복음교회당회장) 등
- 8) 기대효과
* 베데스다총동문회 회원
* 4차원영성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정회원가입(총재 조용기목사)
* 봉사 및 사회참여(영산순복음기독교재단과 연계한 사회 구제활동)
* 교제와 교류(정기모임 및 Net-Work 형성)한국-미국

2. 여름학기 목회학 박사(D.Min) 집중과정

베데스다 대학교는 1976년 조용기 원로목사님께서 세계를 주도할 기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꿈을 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대학교입니다. 본 대학은 발전을 거듭하여 캘리포니아주정부부산하의 BPPPE의 인가는 물론 미연방 정부 교육부 USDE 및 고등교육인가 기관인 CHEA 산하의 ABHE 및 TRACS의 인가를 받아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정규대학교입니다.

과정개요

- 1) 목회학박사 입학 절차요건
* 인가된 대학원의 목회학 석사학위(M.Div)소유자로서 3년이상 목회를 하신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을 위한 목회학 박사과정
- 2) 교육기간
* 오순절 영성의 토대와 성장: 7월22일(월)-26일(금) 담당교수 Dr. Ken Walters
* 선교사역과 문화적 참여: 7월29일(월)-8월2일(금) 담당교수 Dr. Alan Mc Mahan (목회학 박사 과정은 집중과정으로 진행되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 3) 입학지원비(\$35 국내지원자 \$280 해외지원자(1-2 발급비포함))

원서교육 및 접수

- 4차원영성최고지도자 과정 및 여름학기 목회학박사 집중과정
- * 베데스다대학교 교무처(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 * 지원서 마감: 목회학박사과정 7월5일까지
- * 홈페이지: www.buc.edu
- * 문의: 4차원영성 최고지도자 과정(714)318-9528 목회학박사과정 (714)517-1945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너나 잘하세요!

안중근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이포 히로부미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은 모두 7방이었다. 이포 히로부미의 배와 복부를 맞춰 그를 쓰러뜨렸고 1발은 그 곁에 있었던 하얼빈 총영사를 맞추고 3발은 만주 철도 공사의 총재와 이사 그리고 비서관을 정확하게 맞췄다. 나머지 한 발을 쏘려고 하는 순간 러시아 헌병이 그를 덮쳐서 권총이 떨어지는 바람에 안중근의사는 대한민국탄생을 세 번 의치고 체포가

된 것이다. 그 후 5개월간의 형을 살다가 1910년 3월 26일 그에 생을 마쳤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건의 기록은 일곱 발 밖에 쓰지 못해서 이렇게 정리했다. "안중근 의사의 권총에는 아직 한 발이 남아 있다. 100년의 세월을 견디어온 그 마지막 한 발로 우리는 이제 내 안의 이포를 쏘아야 한다." 그랬다. "이제 내안에 있는 이포를 쏘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남은 한

발은 다른 사람에게 총 뿌리를 들 여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해 쏘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한 교만,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한 내 안의 욕망을 향하여 쏘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남에게는 엄청난 짐을 지우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운 사람은 화가 있고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무슨 일만 생기면 나를 돌아보지는 않고,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다. 마지막 그 한발까지도 남을 향해서 총 뿌리를 겨누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무엇이 문제인가? 일이 잘못되면 항상 다 저쪽이 문제라는 것 아닌가? 모두가 서로를 향해 총 뿌리를 겨누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부인 때문에 그렇다. 다 남편 때문

에 그렇다 다 머느리 때문에 그렇다 다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은가? 서로를 향해서만 총 뿌리를 겨누기 때문에 우리가정에 화목이 깨지고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인생까지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남을 향해서 총 뿌리를 겨누면 두 가지 비참한 결과에 직면할 것을 보여준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그는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를 깨우쳐주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화를 입게 되었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 율법사처럼 "지금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율법사들이 "당신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고 모욕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라고 반항적인 반응까지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 항상 남을 향해서 계속 공격하는 사람은 정작 내가 들어야 할, 나 자신을 위한 말도 듣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올린 인격과 덕까지도 모두 상실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꾸 남을 향해서 눈을 부릅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리는 것이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자기를 돌아볼 때 비로소 책할 것이 자신에게도 많은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화도 이루어간다. 그러나 남을 보기 시작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커다랗게 보인다.

남에게 총을 겨누는 사람들의 두 번째 결과는 남을 향하여 총 뿌리를 겨누는 사람은 결국은 남을 죽인다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사람을 죽였고 너희도 죽이니 또 지금도 일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조상의 악한 일에 후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왔다가 먼저 믿은 사람

의 전투적인 말 버릇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과 관계는 아예 맺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성경에 보면 예수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아담의 영은 죽이는 영이라고 했다. 아담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살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느라 남을 향해서 총 뿌리를 겨눌 여유조차 없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달려왔을 때 예수님이 무어라고 말씀했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돌을 남에게 던지지 말고 다 각각 자기 안의 이포를 향해 던지라는 말씀이다. 전문적인 용어 하나 가르쳐드린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남 말 하지 말고 남의 잘못 지적하지 말자! 아직 남은 내 총알을 쏘아야 할 이포가 바로 내 안에 있다.

푸 / 른 / 초 / 장

박상훈 목사
(승동교회)



오늘 본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에 두 번 나타나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단어가 바로 권위입니다. 우리도 권위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합니다. 예컨대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또한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를 말합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지기도 하며, 또한 이런 저런 권위 아래 놓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마28:18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는 권세나 권위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모든 면에서 절대적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

셨습니다(27-28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

여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성 안에서 거처를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갔다가 낮이면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막11:28)

둘째 질문입니다.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뜻입니까? "성전을 관할하는 것은 우리의 권위이다. 그런데 우리 중 아무도 너에게 이런 일할 권위를 준 적이 없다. 그러니 너는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시달림을 받고 계십니까? 절

지 이르러라"(막11:29)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가 밖으로 드러나도록, 그들에게 하나의 맞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나 내게 대답하라(막11:30). 예수님의 질문은 이러한 의도였습니다. "요한이 나에 대해 증언한 사역이 신적이거나 아니면 인적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기를 박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대답하라."

눅7:30 말씀과 같이,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 사람의 계교는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3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권위로 자기를 믿는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권위로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정죄하시며 심판하십니다(막11:33).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결기관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나,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나? 그들은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한 결과 그들은 공여지적으로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남으려고 비겁하게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과거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늘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하면 살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 답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7-33절)

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에게도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박해를 이기셨습니다(29-3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그들의 대답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나 그들이 선뜻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동작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심으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며 대적하는 자들의 박해를 이기셨습니다. 롬11:33말씀처럼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도 풍성합니다. 그러므

남가주사랑의교회 Sa-Rang Community Church

찬양대 지휘자 청빙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섬기실 교역자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1부 찬양대 지휘자(파트타임) 1명

- ❖ 자격: 신학 중 혹은 신학을 마친 분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
결혼한 사람으로 미국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

부지휘자(파트타임) 1명, 음악간사(해프타임) 1명

- ❖ 제출 서류: 개인 소개서와 이력서, 그리고 추천서 2장 (전임 사역지의 담임 목사 혹은 행정 목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오디오와 인터뷰

- ❖ 마감일: 2013년 7월 1일

- ❖ 문의 및 제출처: 조성환 음악 목사 (714) 403-8952 scho@hiu.edu

남가주사랑의교회 Sa-Rang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노창수 / Rev. Chang Soo Ro, Sr. Pastor
www.sarang.com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e-mail: church@sarang.com

담임목사 청빙

아르헨티나 중앙교회는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Chung Ang) 1972년 8월 6일에 설립된 교회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중남미 노회에 속되어 있으며 합동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하며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나가는 교회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 목회 경력 5년이상 시무하시고 만 40세에서 50세 되신 분으로 청빙합니다.

(1) 제출서류

1.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2. 신앙고백서(A4 용지 2매 이상)
3. 개인 및 가족 소개서
4. 목회 계획서
5. 학위 증명서
6. 목사 안수 증명서
7. 최근 본인설교 2편(인터뷰 동영상 1편)
8. 현재 사역교회의 주보 1개월분
9. 현재 사역교회 홈페이지 주소
10. 현재 시무목사 추천서 2명이상 (추천인 서명날인 및 밀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전형방법

1. 1차 서류심사
 2. 2차 개별인터뷰
- *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인터뷰

(3) 제출처

1. Av. Castañares 1435 - Cp 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Chung Ang
 2. E-mail: chungang.ar@gmail.com
 3. Facebook.com/chungang.ar
- Tel: 0054-11-4921-9395/0509/8860

(4) 제출방법

1. 우편이나 E-mail.
2. 기한: 주후 2013년 7월 31일까지 (2013년 7월 31일까지 발송인 찍힌것 유효)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청빙위원회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공립학교의 심각한 문제들과 대책

지금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등 미국의 대도시들의 공립학교에서는 5살짜리 유치원생부터 시작하여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적어도 8가지 이상의 왜곡된 성적체성을 가르치며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학부모들의 권리로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자녀들을 정식으로 면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지금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우며 실습한다.

1. 왜곡된 동성애, 양성애, 성전

취도는 매우 낮다.
7. 건강치 못한 교제교육-건강한 사회교제 실습이 낮으며 학생들 간의 건강한 교제가 매우 낮다.

8. 결여된 안전성-계속 늘어나는 학교내 총기사건과 도덕성의 타락으로 공립학교들은 보통 사립학교나 홈스쿨링보다 훨씬 위험한 장소가 돼버렸다.

9. 비도덕적 비인격적 학습-더 심각하게 “개인중심”적인교육을 통해 도덕과 인격에 대한 교육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논리적이기보다 감정적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10. 반부모 교육-부모들을 존

중, 기업회사, 문화 결국은 정치 속까지 깊이 들어와 21세기 미국의 문화적 흐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 또한 이 법안에 의해 교사가 친동성애 교육을 하는 것이 의무화 됐다.

SB 71: 데이비스는 2003년 제출한 SB 71을 계속 추진시켜 2008년 새 주지사 아놀드 슈와츠네거와 성공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SB 71은 공립학교의 “성 건강 교육 Sexual health”의 기준을 매우 비도덕적으로 낮춰버렸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도 합의하에 콘돔사용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safe 안전한” 성관계 갖는 것을

이외에도 공립학교의 교육수준을 비롯한 도덕적 가치관을 몰락시키는 법안들이 급속히 공립학교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그런 공립학교의 몰락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원들과 주지사들의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 지금의 공립학교들은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지금의 좋은 학교, 좋은 학군”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된다. 어떻게 이런 공립학교에서 소중한 자녀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온 교회들과 교역자, 성도들의

홈스쿨링이나 교회학교, 기독교학교 통해 자녀교육 왜곡된 성적체성 교육 이기도록 간절한 기도 필수

환자들에 대한 교육-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 데리고 나가 친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들이 되는 카운슬링까지 받게 한다.

2. 낙태 찬성 교육-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진 교육. 내게 불편한 것이라면 언제든 낙태할 수 있으며 부모님과 동의나 허락의 필요성을 가르치지 않는다. 전폭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분별없는 “자유”와 “개인주의”를 가르치고 있다.

3. 분별없는 성교육-“안전한 성관계는 오케이”로 가르치며, 콘돔이나 피임약 등의 사용을 장려하되 HIV/AIDS에 대한 교육은 매우 영성하다. “금욕과 자제(Abstinence Education)” 교육은 찾아볼 수 없으며,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교육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예)남녀사위, 콘돔선물, 성적으로 자극 주는 방법 등...

4. Anti-God 반기독교 교육-하나님을 미워하고 진화론위주의 왜곡된 수업을 하며, 기독교가치관과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들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5. 왜곡된 정치(Political correctness)-자녀들을 해치는 법안들이 학교 안에서 증가되고 있다.

6. 낮은 학업성취도- 사립학교나 홈스쿨링보다 훨씬 낮은 학습 성취도와 학업율로 미국의 교육성

중하고 부모들을 공경하는 교육과 정반대로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최고로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라는 “개인중심”적인 교육이 넘쳐난다.

점진적 법안 마련

이러한 공립학교의 심각한 문제와 학부모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일은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다.

AB 537: 1999년 당시 주지사였던 그레이 데이비스(Gray Davis)에 의해 AB 537이라는 법안이 통과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성적체성을 알리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동성애/성전환자에 대해 친숙해지기 위해 선생님들도 하여금 남장/여장을 하고 가르치는 것도 허락했다.

AB 1785: G. 데이비스는 2000년 AB 1785 법안을 통과시키며 캘리포니아 교육국으로 하여금 공립학교 모든 교과서에 “human relationship education” “diversity” 교육을 삽입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필수화 시켰다. 이 교육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교육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기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획기적인 유행을 만들어낸 “Diversity”(다양성/포괄성)라는 말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학

가르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와의 성관계도 정상적인 성관계로 간접적으로 가르치도록 돼있다.

아놀드 슈와츠네거는 2007년 “anti-harassment(괴롭힘 반대 운동)”과 “anti-discrimination(차별반대운동)”의 이름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사실상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학교와 학생들, 부모들에게 공공연히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는 것을 장려하는 법안이다. 즉, 학교 학습시간에 과외(extra)교과서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자료들을 포스터, 웹사이트, 뉴스레터 등 여러 형식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동성애에 더 친근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법안이었다.

SB 48: 2010년부터 제출된 이 법안은 우리 한인들도 미국 보수 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처음으로 싸웠던 법안이다. SB 48은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를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의 교과서를 바꾸게 만드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2012년 동성애 지지자이며 매우 자유주의 편에 있는 또다른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에 의해 통과됐다.

건강한 자녀교육을 위한 제언

하나됨이 매우 중요하다.

1.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다. 영육 간에 건강한 자녀, 자존감 높은 자녀들로 키우는데 이미 성공적인 예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영향력 높은 사람들이 홈스쿨링을 한 예도 많다.

2. 교회 사립학교 또는 기독교학교-이미 세워진 좋은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것이 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교회에서 사립학교를 시작하는 것이다.

3. 다음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진정한 다음세대를 위한 투자는 잃어버린 교육을 다시 창조해 내는 것이다. 교육(공립학교)을 잃어버리면 다음세대를 잃어버린다. 이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며 건강하고 더 실력 있는 다음세대,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모든 투자를 그들의 진정한 교육(세상에서만 성공하는 교육이 아닌)을 위해 할 때이다.

TVNEXT에서는 지금 홈스쿨링과 교회 사립학교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 중이며, 이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학부모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교회와 학부모님들을 돕고자 준비 중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오늘날 미국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문제를 인권문제로 결부시켜 그들을 인정해주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들어왔다면 이들을 어떻게 지도해 주어야 하는지요?
-토론펀에서 박 집사

A: 오늘날 문화적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오늘날 사회분위기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표현의 한 다른 형태로 인정하려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지만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확실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조건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문화는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동성애를 인권(Human right)차원으로 연결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면서 동성애자들도 인간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한 그들을 인권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 주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과 전략은 지식인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점점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바른 성경적인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신약에서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걸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동성애는 결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교회는 동성애자 연민하며 탈피 도와야

인간의 반역으로 생긴 부자연스러운 행동 즉 순리를 거슬린 역리적인 행동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동성애를 죄악시하되 동성애자는 교회가 연민과 관용으로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동성애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본성에 역행하여 성적욕구를 추구하는 자들이지만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대상이며 연민의 대상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도와야 하고 구체적으로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이들을 연민하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권고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닌 존재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그룹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동성애는 치료하고 변할 수 있다는 다양한 보고서와 통계들을 제시하면서 신자는 동성애자들이 이일에 의지를 갖고 기도하며 노력을 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치료라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이성애로 교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독신으로 살도록 강력히 권해야 합니다. 동성애자가 자의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동성애행위를 변호하거나 양해사항으로 만들어줄만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체질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동성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성애자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배우자 외에 어떤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싸워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정될 수 없는 동성애자들은 도덕적인 순결한 삶을 위해 독신으로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치료해주시도록 간구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Korea

• Nov 4-8 (11월 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익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서신

책망 받을 때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회 담임)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 존경, 인정, 높이, 섬김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책망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칭찬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모두 다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잘못하면서, 범죄하면서 칭찬을 기대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마땅히 책망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잘못했는데도, 범죄했는데도 책망하는 자가 없다는 것

이 불행이다. 오늘날 가정과 학교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도, 책망하는 부모, 교사, 어른들, 목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다. 좋은 게 좋다고 적당하게 넘기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안티 기독교 버스 광고'가 한국에 등장했다고 한다.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반기련)은 서울시내와 경기도 광명

시 등을 운행하는 8대 버스 외부에,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한 광고를 실었다. 반기련 측은 "기독교가 '예수전당, 불신지옥'이란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기독교가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 무신론 광고를 실었다"고 주장했다. 무신론자들은 그렇

다고 치고, 신자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먹고 산다. 또한 하나님을 위로, 격려, 칭찬만하고, 저주와 책망은 하실 줄 모르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을 잘 고찰해보면 많은 책망의 사건을 찾아볼 수 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비유적으로 책망했고, 요나는 니느웨 성의 심판에 대한 책망을 했고,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했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일곱 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의분을 발하며 소경된 지도자, 외식하는 위선자들을 비판하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며 무신론 광고를 실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무신론자들은 그렇

지도자들 향하여 당당하게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너희가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라고 책망했다. 또한 예수님도 "그(성령)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16:8)고 말씀하셨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중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잠언25:12)고 했다. 책망을 듣기는 싫지만 책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책망의 유익 십계명"에 대하여 한번 적어보았다. (1)책망은 죄를 알려주는 알람(경고, Alarm)이다. (2)책망은 회개의 영을 더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다. (3)책망은 교만을 깨뜨리는 방망이다. (4)책망은 게으름에서 해방 받게 하는 채찍이다. (5)책망은 어두운 눈을 밝게 하는 안약이다. (6)책망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지팡이다. (7)책망은 귀신의 정체를 밝혀내는 탐지

기다. (8)책망은 사람을 만드는 교관이다. (9)책망은 질병을 치료하는 침이다. (10)책망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다. 내 주변에서 나를 책망해 주는 자가 없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를 책망할 수 있는 자가 진실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감당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아부성 칭찬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칭찬을 받기만 바라지 말자. 지금은 칭찬할 때도 아니고, 칭찬받을 때도 아니다. 지금은 책망 받을 때이다. 책망 받지 않고 칭찬만 받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최고 최선의 삶이다. 그러나 책망 받을 일을 했다면 책망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칭찬보다 더 달고 귀하게 받아들이자.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일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목회자들 '범죄와의 전쟁' 동참

미국 알라바마 주 몽고메리 시에서는 목회자들이 범죄와의 전쟁에 동참한다. 지역신문인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는 몽고메리 시 경찰이 추진하는 '선한 목자 작전'에 많은 목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18일 전했다. 선한 목자 작전은 방범 활동과 범죄 발생 후속조치에 지역 목회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우범지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강력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기도를 통해 회복시켜주는 것이 작전 참여 목사들의 주된 임무다.



케빈 머피 몽고메리 시 경찰국장은 "지방정부와 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운트시온교회를 이끄는 클로드 슈포드 목사는 "사람들이 다친다면 교회가 당연히 나서야 한다"며 이번 계획을 반겼다. 홀트스트리트교회의 에릭 손튼 목사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나 참여할 생각이었다"며 의욕을 나타냈다.

선한 목자 작전에 참여하는 목사들은 4차례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우범지대와 범죄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에선 경찰의 거리 순찰과 범죄자 검거 현장에 동행하고 마약 등 불법 약물 식별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목회자 대상 교육에 강사로 나서는 어니스트 블랙셔 알라바마주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 성향을 목사들이 잘 이해하도록 도움"이라고 말했다.

목회자가 경찰과 함께 범죄예방에 나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블랙셔 교수는 "거리로 나가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 훌륭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며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말리 내전으로 30만명이 캠프 생활"

국제구호단체 플랜인터내셔널은 말리 내전으로 인해 30여만 명이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아동보호정책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재난위기대응팀을 파견해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플랜인터내셔널은 "2012년 식량난으로 시작된 말리의 위기는 2013년 내전이라는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OCHA(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보고에 따르면 30여만 명의 난민이 말리 내 난민 캠프에 있는 것으로 집계 되고 있으며 18만 명의 말리 주민들이 인근 국가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분쟁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극심한 영양실조와 게릴라 공격, 차량 폭탄 테러, 지뢰 폭발 등 불안정한 치안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이런 상황 속에 분쟁과 가장 무관한 아이들은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이라고 우려했다.

플랜인터내셔널은 현재 난민 캠프 지역을 중심으로 문구 키트 보급, 영유아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 등 2만여 명의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플랜코리아 역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생생한 말리 내전 현장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 오인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서 21일 사실 경비원이 40대 유대인을 오인 사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이스라엘 국적 유대인 남성(46)이 예루살렘 '통곡의 벽'(서쪽 벽)에서 무장 단체 테러리스트로 오인받고 경비원

이 쏘 총탄에 맞고 사망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 남성이 통곡의 벽 상가에 있는 공중 화장실 옆에서 아랍어로 '알라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치자 경비원이 이 남성에게 수 발의 총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슬람 무장단체 전사들은 테러를 실행에 옮기기 전 '알라 아크바르'를 종종 외친다.

경찰은 또 이 남성이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경비원의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숨진 남성이 실제 총기를 소유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통곡의 벽' 주변에는 수백 명이 아침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언론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예루살렘 성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이 남성이 가끔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최대 성지로 꼽히지만, 팔레스타인은 이 일대가 장래에 이스라엘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점령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빚는 곳이다.

벌써부터 반(反)힐러리 모임 결성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조차 안 했는데도 벌써부터 힐러리 대통령 지지 모임까지 결성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 임기를 시작한 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대규모 민간 정치행동모임(PAC)인 아메리카라이징은 최근 힐러리 전 장관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한 '저지 힐러리 2016' 모임을 결성했다고 22일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 모임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리는 힐러리 국무장관 재임 때부터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아왔다"면서 '오바마 정부' 8년에 이어 또다시 '힐러리 정부'가 구성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메리카라이징은 밋 롬니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의 선거책임자였던 맷 로즈가 공화당전국위원회(RNC) 관계자들과 함께 결성한 기구다.

힐러리 전 장관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기구까지

출범함에 따라 되레 힐러리 전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한 대중의 관심만 높아지게 됐다. 벌써부터 힐러리 전 장관의 출마를 촉구하는 지지선언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해 반(反) 힐러리 진영에 섰던 클레어 맥케스킬(민주·미주리) 상원의원은 '레디 포 힐러리'라는 지지단체를 결성했다.

또 크리스틴 길리브랜드(민주·뉴욕) 상원의원도 "개인적으로 클린턴 전 장관에게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직접 대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클린턴 전 장관의 열렬한 지지자인 에드 렌넬 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도 최근 의회전문매체 '더 힐'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초점은 힐러리로 옮겨갈 것"이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가세했다.

메릴랜드 주에 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

한국전 발발 63주년을 이틀 앞둔 23일 미국 메릴랜드 주 워싱턴카운티의 헤이거스타운에서 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앤터팀 312지부(회장 레스 비숍)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노병들은 한국전에서 목숨을 잃은 이 지역 출신 전우 42명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바라보며 전사자들을 추모했다. 행사에는 비숍 회장을 비롯한 참전용사들과 에드워드 초우 메릴랜드 주 보훈부 장관, 미국 국방부 및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존 T. 도너휴 메릴랜드 주 하원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3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기념비 제막식이라는 결실을 거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참전용사들께 감사한다"면서 "이 기념비는 후세대에 대한 교육 목적도 될 수 있고, 발전된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와 시민 기부금 등 총 10만 달러가 투입된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에는 3개의 대형 비석과 3개의 깃발이 나란히 세워졌으며, 벤치도 마련돼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워싱턴카운티 당국은 기념비 제막식을 기념해 이날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 발표했다.



변화하는 글로벌 선교

소아시아에서 1세대 선교사로 26년간 사역했고 현재 GMS 선교훈련원장으로 미래의 한국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는 조용성 선교사의 글로벌 선교의 이론과 현장과 전략을 담은 책이다. 오늘날 선교의 이슈, 동향, 전략을 이슬람, 서구 기독교와 관계하여 예리하게 파악하고 균형있게 선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용성 지음 / 536면 / 20,000원 / 신국립 양장



사도행전 주해

프론티어스(Frontiers) 창설자이자 총대표인 그렉 리빙스턴의 사도행전 주해서. 타종교 지역,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 개척하는 사역자를 위해 성경의 능력과 적용, 자비량 사역, 신학의 기초, 박해 등에 대해 사도행전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서 선교 사역자들에게 제자훈련 교재로서 소그룹으로 토의하기에도 훌륭한 책이다. 그렉 리빙스턴 지음 / 김동현, 김수용, 이현주, 전병희 공역 / 536면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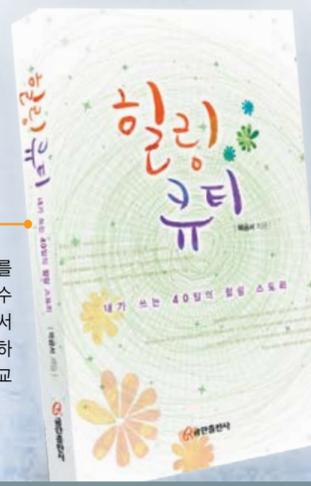
사자성어로 된 복음행전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구절을 사자성어(四字成語)화하여 해석을 달고, 관련 성구를 기록하여 성경 구절을 한자로 친숙하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한 책이다. 성경순 편집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한자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김인식 편저 / 312면 / 13,000원



힐링 큐티

힐링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힐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힐링 멘토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책은 매일 한 테마씩 40일 동안 큐티를 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구성되었으며, 스스로 힐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하며, 구역공과나 팀모임 교재로도 좋지만 혼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다. 박공서 지음 / 342면 / 12,000원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김만형 목사

(친구들교회)

세계 한인교회를 위한 교회교육 제안 (3)

요즘 예배는 균형 잡힌 영성에 비추어 본다면 주로 지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균형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균형을 다시 한 번 회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예배 안에 좀더 감성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강조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 주일학교의 예배와 교육은 지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는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이는 그 외의 어떤 다른 것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됩니다. 지식은 감성과 함께 움직일 때 풍성해지고 의지와 함께 갈 때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주일모임 중 풍성한 찬송으로 감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을 디자인한다면, 기도시

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험으로 보았을 때 풍성한 찬송은 풍성한 연주와 함께 어울려 집니다. 아울러 찬송이 부요해질

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학생들로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까스로 따라 노래할까 말까 합니다. 현 주일학교의 대부분은 악기도 단순히 피아노만 사용하

때 기도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인 예배에 불꽃을 낼 수 있는 악기를 써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모임을 위해서는 왜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는가?

오히려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찬송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찬송을 위한 반주가 전

로 좀 멀리 앉은 학생들에게는 잘 들리지도 않고 함께 찬송하고자 하는 열정도 일으키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현대적 감각을 갖춘 음악과 악기를 균형 있게 사용하므로 우리는 학생들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5. 교회 교육이 현장감이 있도

록 실제 삶의 상황을 교실로 끌어와 배우는 진리가 현실에 연관되도록 하라.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감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아서 교인들은 많은 교훈들을 받고 진리를 배우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이 뒤떨어져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삶의 현실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산학협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업체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는 의미로 본질적으로 학교의 이론과 산업체 현장의 현실을 연결시켜 좋은 물건을 만들자는 의미로 담겨져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는 산업체 현장에서 잘 쓸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업체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 간격을 좁히는 작업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고 맞고요. 그런데 목사님도 한번 내려와서 살아보시죠’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목사님은 설교를 열심히 하시면서 이론을 잘 말씀해주시는데 우리의 삶은 그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의 간격이 멀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것을 가르친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이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 들어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강대상에서 ‘여러분 정직하세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패러다임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들이 정직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현장을 끌어오자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서 정직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들의 시험 치는 현장이 그 하나일

다. 다음은 신나게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라는 말만 하지 말고 그들의 삶과 연결시켜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냐는 것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비디오는 교육을 현장감 있게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가상현실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도 성경의 가치관이 실제 삶에 잘 접목되도록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의식이 바뀌도록 가상훈련을 많이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때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가상의 현장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급히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데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나가는 중 전철역에서 쓰러져 피를 흘리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대화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접근은 학생들이 하여금 기존의 생각을 바꾸고 실제 상황에서 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메일: kimanhy@hanmail.net (다음호에 계속)

감성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 강조하는 균형 잡힌 예배드려야 삶과 성경 가르침 사이 간격 ‘가상현실체험’으로 좁히기 시도

가정사역 칼럼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청년)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지난주 필자는 미주 서북지역 청년들이 준비한 NW캠프에서 ‘데이트 결혼’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돌아 왔습니다.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은 시애틀, 워싱턴, 밴쿠버 지역 기독교청년 연합모임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볼 때 청년의 시절이야말로 이성교제와 만나 자기를 알고 결혼을 설계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NW캠프처럼 청년들을 위한 좀 더 폭 넓고 여유 있는 정보와 만남의 장이 계속 마련되어지

를 바랍니다. 오늘은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을 위해 데이트와 결혼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남녀의 만남은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사람들까지도 설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교제하다가 결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아름다운 시기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

을 듣는 것이 좋고, 성경적 결혼과 데이트에 관한 책자들을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가. 결혼을 전제로 한 1대1 만남을(Serious Date) 갖기 전에 해야 할 준비

1. 성경적인 결혼관을 확립한다: 성경적 결혼에 관한 세미나나 책자들을 통해 지식과 정보들을 수집하십시오.

2. 그룹데이트(활동)를 한다: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겠습니다. 데이트는 그룹데이트와 결혼을 전제로 한 1:1의 만남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1:1의 만남을 갖기 전에 그룹데이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룹데이트란 불특정 다수의 남녀가 어울려 함께 활동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으로,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회나 성경공부를 하는 것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이나 단기선교여행, 봉사활동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데이트 과정을 통해 올바른 이성교제나 행복한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한 후 1:1의 만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별력 없이 이 사람에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혼란스럽기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맡게 되기 때문에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못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 교회 청년부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친교를 나누며 예비결혼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중에는 직장에서 바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바쁜 청년들은 개교회의 청년회 모임에서 만나는 한정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성교제 대상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분명한 이성교제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가르치고 자연스런 만남의 장을 제공하면 청년들의 결혼관과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이 보다 건전하고 절도있게 되어 건강한 결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3. 훌륭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흔히 훌륭한 사람을 찾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정서적 발달 단계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한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될 때 훌륭한 사람을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방학을 맞아 각 교회 및 선교단체의 청년들은 수련회 및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먼저 자신의 소명을 찾으십시오. 배우자감이 보일 것입니다(Mission을 알면 Mate가 보인다). 그리고 관망만 하지 말고 찾아 나서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후회없이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기간 : 2013년 6월 13일(목) ~ 20일(목)
7월 18일(목) ~ 25일(목)
8월 15일(목) ~ 22일(목)

| 시간 : 오후 7:30, 새벽 5:30, 오전 10: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목사)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42. 젊은 지구에 대한 10가지 과학적 증거 (6)그랜드캐년의 지층들

그랜드캐년에 가보면 지층 (rock layer)이 평평하게 쌓여 있을 뿐 아니라 각 지층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무지개떡을 연상시킨다. 그랜드캐년은 해발 고도가 2000 - 3500m인 지역이며 한반도의 약 3.5배나 되는 넓은 고원지역이다. 그런데 이 지층들 중에는 미국 서부나 동부 혹은 캐나다 지역까지도 연결이 된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북부지역과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지층이 발견된다고 한다.

지층이란 모래나 점토 혹은 자갈 등이 물에 쓸려가면서 수평으로 형성된 층이다. 지층의 형성은 언제나 수평으로만 이루어진다. 또, 지층이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지층은 단단해져서 바위가 된다. 이런 바위를 퇴적암 (sedimentary rock)이라 부른다.

만약 그랜드캐년 고원지역의 평평한 지층이 만들어지고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솟아올랐다면 그랜드캐년의 고원과 고원 아래의 저지대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있는 퇴적암들은 부서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랜드캐년 고원지역의 융기현상이 퇴적이 일어나고 아직 단단해지기 전에 일어났다면 중간지점의 지층은 부서지지 않고 높아져 휘어졌을 것이고 이런 상태로 단단하게 굳은 퇴적암이 되었을 것이다.

그랜드캐년의 암벽에서 화석이 들어있는 지층의 높이만 1370m에 달하는데 진화론적인 지질시대로는 고생대의 캄브리아기(Cambrian)와 페름기(Permian)에 해당한다. 이 진화론적인 기간을 연대로 표시하면 지금으로부터 5억 2천만년에서 2억5천만 년 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전 장구한 세월동안 겹겹의 층으로 쌓인 이 지층에 놀라운 일이 일어

났는데 지금의 콜로라도 고원이 2150-3450m나 솟아올랐다는 것이다. 진화론적인 지질 역사로는 이때가 약 6천만 년 전이라고 주장한다.

생각해보자! 지금으로부터 약 6천만 년 전에 그랜드캐년의 고원이 융기했다면, 캄브리아기 층(5억2천만 년 전)이 쌓인 후 무려 4

부러져 있다. 석회암은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성분들이라 다른 지층에 비해 훨씬 빨리 굳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층들이 부서지지 않고 휘어있다는 사실은 지층이 쌓인 기간 뿐 아니라 그랜드캐년의 고원이 솟아오른 사건 사이의 시간간격이 아주 짧았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진화론적 역사가 사실이라면 그랜드캐년의 지층들이 쌓인 기간은 2억7천만 년 동안의 장구한 기간이었다. 이 기간이 사실이었다면 맨 아래 지층인 태핏 사암층은 오래 전에 말랐을 것이고 그 위에 1220m나 되는 암석층들이 누르는 압력으로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졌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370m에 달하는 두께의 모든 지층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퇴적되었어야만 된다. 창조론 모델인 전 지구적인 홍수가 사실이었지 5억2천만년이 사실일 수 없다. 지구는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불과 수천 년 된 젊은 행성인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지층이 부서지지 않고 구부러진 경우를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열과 압력이 단단한 바위 층을 구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암석이 열과 압력

인 성경의 노아홍수 기록을 읽어 보면 이런 대규모 증거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이다.

노아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되었는데 약 150일간 전 지구가 물에 덮여있던 사건이었다. 비가 밤낮 40일 동안 내렸다는 설명보다 먼저 기록된 것이 있는데 '모든 깊은 샘이 터졌다'는 것이다(창7:11-12). 물과 지진과 화산 폭발이 어우러져 쓰나미와 땅이 부서져 만들어진 흠뻑물이 온 세상을 뒤덮었던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노아홍수의 격변이 지구를 멸망시킨 사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창6:13b). "땅을 짐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창9:11).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벧후3:6).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370m에 달하는 그랜드캐년의 모든 지층들이 쌓였고 물이 바다로 물러가는 과정에 콜로라도 고원이 솟아올랐던 것이다. 이때 아직 굳지 않은 지층들은 한꺼번에 휘어지고 구부러지게 된 것이다. 그랜드캐년은 전 지구적 격변인 노아홍수가 사실이었다는 하나님의 이정표다.

북아프리카, 이스라엘까지 그랜드캐년과 같은 지층 발견 고원과 저지대 사이 휘어있는 사암층은 짧은 기간 퇴적된 증거



그랜드캐년의 지층과 성경의 역사
완전히 단단해진 퇴적암을 휘 수 없다. 그랜드캐년의 퇴적암이 변성되지 않고 휘어 있는 유일한 설명은 아직 단단해지기 전에만 가능하다. 두꺼운 그랜드캐년의 지층이 쌓인 기간과 구부러지게 된 기간이 아주 짧았어야만 가능하다. 그랜드캐년은 전 지구적인 격변적인 노아홍수가 사실이었다는 하나님의 이정표다.

억6천만년 후의 사건이어야 한다. 이 지층은 이미 굳어있어야 했으므로 솟아오른 고원과 솟아오르지 않은 저지대의 중간에 있는 지층은 휘어지지 않고 부서졌어야 한다.

그랜드캐년 고원의 동쪽 끝에 가보면 퇴적암 지층 전체가 한꺼번에 각진 채로 접혀있지만 어느 층도 부서지지 않았다. 이 층의 가장 밑바닥은 태핏 사암(Tapeats Sandstone)이라 불리는데 지층 두께가 30-100m다. 이 지층은 90도 각도로 휘어있지만 부서지지 않았다. 이 지층 바로 위에 있는 지층은 석회암 층인데 이 지층도 역시 부서지지 않고 비슷한 정도로 구

을 받는다면 암석은 수정이나 대리석이나 다른 암석으로 변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랜드캐년의 태핏 사암층은 아직도 변성되지 않은 퇴적암이다.

2. 노아홍수와 홍수 직후
그랜드캐년 고원의 태핏 사암층은 북아메리카대륙 거의 전체와 북아프리카와 이스라엘까지 뻗어 있다. 더욱이 고원과 저지대 사이의 부서지지 않고 휘어있는 사암층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격변을 인정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증거이며, 약 1년 동안 있었던 사건

3. 수십억 년과 복음

진화론과 진화론에 근거한 수십억 년의 기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아주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다. 수십억 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던 하나님은 불과 몇 십만 년 혹은 몇 천 년 전에 드디어 그 힘든 창조를 마치고 숨을 돌리시며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것일까? 수 백만년 전에 원숭이 한 쌍을 잡아와 그들에게 영을 불어 넣어 인류의 조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였던 것일까? 하나님은 그 동안 어디에 계시다가 불과 몇 천 년 전에 인류에게 나타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일까?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인 수억 년 전 그랜드캐년의 태핏 사암층에 묻혀 있는 삼엽충의 죽은 사람의 죄와 상관없이 죽었는가? 수십억 년의 진화역사가 사실이라면 성경은 사실일 수 없고 기독교의 복음은 허상일 뿐이다. 사람들의 믿음은 사라졌어도 그랜드캐년의 지층들은 여전히 성경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책임감으로 하나되기

'아버지께서 내안에, 내가 아버지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17:21)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애 기간 중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는 '하나'되어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외딴 섬처럼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쉬운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되기를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 채 외로움과 고독 속에 분열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가 서로 서로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감의 성품으로 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약속과 연약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책임감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각각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감의 성품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1.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찾아봅니다.
2. 내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성합니다.
3.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꼭 지킵니다.
4. 내가 잘못한 것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5.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찾아서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6.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별력을 발휘해 봅니다.
7.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공동체에게 어떤 덕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8.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9.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희망적인 말과 행동을 연습합니다.
10. 내가 찾은 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완수합니다.

우리가 이대로만 행할 수 있다면 '하나'되기를 소원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붕괴 직전에 있었던 한 여인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옆에 오랫동안 다른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여인은 상담을 통해 자신이 남편의 욕구를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해야 할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서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면서 지금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어 '하나'되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관계가 깨진 채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현 시대의 이러한 고통은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왔던 책임감의 부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하나'되는 책임감으로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서로 연합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이끼엔백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납스 2권:다~롯 3권:숫가~소위 4권:소유~오늘 5권:오늘날~종 6권:종교~히데겔 7권:판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한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들이 이해를 돕는 원어와 철저한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CROSSWAYS!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 크로스웨이 1권~5권
- 크로스웨이 사례집
- 크로스웨이 오디오CD
- 크로스웨이 수료증
-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훌륭한 하나님 나라 일꾼 되라”
NJUCA 제 7회 졸업식 한인 7명 등 총 18명 졸업



NJUCA 제 7회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정규 사립고등학교인 뉴저지 유니버시티 크리스천 아카데미 (NJUCA, 교장 Bob Pupchik) 제 7회 졸업식이 21일 저녁 본교 캠퍼스에서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는 특별히 미국인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수석과 차석을 차지해 눈길을 모은 가운데 Pastor Sam의 개회기도, Abby Campbell의 국가독창, Pupchik 교장과 신정하 제단 이사장의 치하 그리고 Salutatorian 졸업생 Autumn Alexandra Chisholm 양 그리고 Valedictorian Holly Catherine Chisholm 양의 졸업 연설, 리더십 시상과 졸업장 수여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신정하 이사장은 졸업생들의 노력과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Pupchik 교장의 폐회선언이 있자 18명의 졸업생(한인 7명, 미국인 11명)들은 일제히 사각목을 하늘로 던지며 졸업을 축하했다.

올해 개교 9년을 맞은 NJUCA는 기독교 영성을 중심으로 소수정예의 기독교 리더교육에 전력을 18명의 졸업생 모두 대학에 진학했으며 이중 한국인 심재문 학생이 명문 펜스테이트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NJUCA는 내년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진 명문 기독교 국제 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 (기사제공: NJUCA)

미드웨스트대학교 2013년 리더십 컨퍼런스
제27회 학위수여식, 뮤직콘서트 등 여름행사

미드웨스트 대학교(총장 제임스 송 박사)는 지난 10일부터 5일간 세인트루이스 캠퍼스에서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 제27회 학위수여식 그리고 음악콘서트 등 다채로운 여름 이벤트를 진행했다.

IFPP(국제종교와 공공정책연구소, 본교 부설) 주관으로 “기독교의 현재와 미래”란 테마로 정진경 박사가 건국대학교에서 진행했던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6월 13-14일)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는 러시아 북쪽주의 지도자로 잘 알려진 Semchenko 목사가 참석해 “러시아 기독교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강연 예정이었으나, 출국 직전 공항에서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해 함께 사역하는 폴 김 선교사가 “러시아 기독교와 선교 현황”에 대한 강연을 했다.

이어서 미주 기독교 저명 강사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Dr. Bill Federer(America Minutes 대표, IEC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총재)가 “미국 기독교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Dr. Bob Fu(China Aid 대표)가 “중국 기독교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김준근 박사(총동문회장, 마포교회 담임)의 “한국 기독교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14일 오후에는 2013년 학위 수여식이 거행돼 새 이사장으로서 선임된 Lindell F. Shumake 미주리주 하원의원이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Bob Fu의 졸업식사, 제임스 송 총장의 격려사, 학위수여식, 폴 김 선교사와 김준근 박사, 전 현직

원즈빌 시장들의 축사가 있는 후 강대형 박사(미주동문회장) 축도로 마쳤다.

미드웨스트대학교는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 학사 3명, 석사 27명, 박사 19명 등 총 49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William J. Federer가 교육선교와 미국 기독교 리더로서의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글로벌리더십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날 저녁 7시부터는 개교 27주년 기념 여름 콘서트가 열렸다. 피아노, 성악, CCM 전공 학생들이 출연해 높은 음악성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으며 웰로십교회 성가대와 Dardenne Chancel Choir도 찬조 출연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뤘다. 올해는 캠퍼스 인근의 많은 미국인 내빈들이 참석했다.

▲연락처: (636)327-4645, usa@midwest.edu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졸업식 총 52명 졸업
조용기 목사 영상축사 보내와

베데스다대학교(설립자 조용기 목사) 2013년도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가 22일 오전 10시30분 본교 예배실에서 개최돼 목회학사 16명, 석사학사 4명, 음악학사 4명, 신학학사 19명, 음악학사 2명, 유아교육학사 6명, 경영학사 1명 등 총 52명의 학위수여자를 배출했다.

교무처장 김효인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졸업식은 윤병준 학생처장이 기도해, John Strazcich 대학원장이 성경봉독을 했으며, 켈빈 박

교수가 특송을 부르고 임동환 부총장이 설교했다.

이어 열린 학위수여식은 김효인 교무처장이 학사보고, 임동환 부총장이 학위 및 상장 수여, 금메리 학우가 졸업생 인사말을 했다.

축사의 시간에서는 본교 설립자 조용기 목사와 본교 공동이사장 공희 목사(싱가포르 시키하베스트교회 담임)가 영상으로 축사를 했으며 김성혜 이사장의 축사는 강승모 교수가 대독했다. 이어 피아니스트 박

“믿음으로 사는 법 학습하라”
베데스다대 주최, 4차원영성 최고지도자과정

베데스다대학교가 주최하고 4차원영성 글로벌포럼 미주본부가 후원한 4차원영성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이 18일부터 20일까지 플라톤에 위치한 하워드존슨 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베데스다대학교 부총장 임동환 박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임동환 목사의 강의와 토론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 오후 강의에서 임동환 박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학습하라”는 주제에서 연애파일이 밀려올 때가 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위대한 주의 종들의 삶을 볼 때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그들이 위대한 종이 된 것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강하게 성장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박사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소망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고 쫓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꿈의 성취과정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 또한 목표를 정할 때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 정말 하고 싶은 것, 사회가 원하는 것, 양심에 비추어 옳다는 확신이 드는 것 등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다락방, 박윤식, 신사도운동 이단규정
예장 미주합동총회 발표, 인터뷰는 1년간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총회장 신창기 목사, 서기 옥영철 목사)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예장 전도총회(다락방) 류광수, 평강제일교회(舊 대성교회) 박윤식, 신사도운동 피터 와그너”는 그대로 받아 이단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가주노회에서 이단선 조사에 대한 현의한 “인터콥(대표 최마을)과 이들이 주관하는 비전스쿨”건은 이단대책특별위원회에 넘겨 1년간 조사 후 제34차 총회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이단연구보고서는 이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희 목사)에서 연구해 발표한 것이며 이 같은 내용은 총회 소속 모든 노회에 전달해 지 교회들이 숙지하도록 한 것이다.

34차 총회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블루벨산인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기사제공: 미주합동총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세메나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0(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a.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르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기도회: 오전 11:00 Tel. (516)863-1977, Fax. (516)86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9:0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718)461-2810(Fax. 김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718)837-14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bc.org Tel. (718)279-2757, 2756,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매주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9:45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성서연구인양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찬양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제자훈련: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9: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us.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1부예배: 오전 1:0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세례기도: 오전 6:00 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수요제자훈련: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y.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석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철야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a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제자훈련: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mk@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제자훈련예배: 오후 7:00 수요제자훈련: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578-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704)9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8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8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c.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킨온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밴앨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태평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4)461-1235, Fax. (414)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재향장로부: 오후 1:30 영아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410)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세례기도: 새벽 6:00 수요찬양예배: 오전 10:45 주일3부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수요학교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08(팩스) 701 Scoblep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제자훈련: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학교: 오전 6:30 Tel. (206)527-08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ejcs.org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제자훈련: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얼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제자훈련: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타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4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9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새벽 5:30(월-금) 세례기도회: 오후 6:00(토) Tel. (253)6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새벽 5:30(월-토) Tel. (253)536-6207, 531-8424 Fax. (253)536-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3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파조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30명 이하)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www.tkpccaz.com Tel. (480)728-0129,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아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토)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www.kcp.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5-0011 1635-A Palalo Ave., Honolulu, HI 96816	오늘블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c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청소년센터 부모교실 오픈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최예식 목사)가 부모교실을 오픈한다. 8주 코스 수시모집으로 강사는 이수일 박사이며 수강료는 없다. 한어권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15분, 뉴욕교협청소년센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9시45분, 뉴욕에베에셀선교회 영어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30분-7시 뉴욕에베에셀선교회에서 한다. 워크샵 내용은 △자녀와의 대화기술 △감정다루기 △저항다루기 △죄책감과 수치심 극복 △신뢰쌓기, 대인관계기술 △치료 정보 나누기 △소망형성 등이다.

▲문의: (718)321-1010

제 8회 청소년 리더십 캠프 2013

패밀리터치(원정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제 8회 '소년 리더십 캠프 2013'이 7월 11일(목)부터 13일(토)까지 뉴저지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9-12학년 학생으로 강사진은 Dr. John Hur (Pastoral Counseling), Ms. Sunny Cho (Ph. D Candidate for Clinical Psychology), Ms. Lisa Chung (Counselor), Mr. JC Yang (High School Vice-Principal). 프랭클린 코비사가 개발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390 달러(교재, 숙식 포함).

▲문의: (201)242-4422, 696-8044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갈망”

뉴저지교협 호산나전도대회, 강사 유관재 목사

뉴저지교협(회장 박상천 목사)이 주최하는 '2013 호산나전도대회'가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갈망"이라는 주제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한소망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서 열렸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호산나전도 대회는 대회를 준비하며 처음으로 3차례의 기도모임을 가졌으며 마켓 등지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 처음으로 성인대회와 동시에 어린이 대회가 열렸다.

강사 유관재 목사(일산 성광침례교회·사진)는 첫날 출애굽기 2장



설교 후에는 직접 찬양을 하며 결신을 인도하는 독특한 순서도 가졌다. 첫날 집회는 이동구 장로(부회

장) 사회로 경배와 찬양 베다니연합감리교회, 인사말 회장 박상천 목사, 기도 윤희호 목사(뉴저지동산교회), 성경봉독 홍인석 목사(가나안 한인교회), 찬양 뉴욕남성목사합창단, 말씀 유관재 목사, 헌금찬양 사

모니아(뉴저지사모합창단), 헌금기도 김명진 목사(하늘샘교회), 광고 박근재 목사(총무), 축도 유재도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첫날 뉴욕남성목사합창단(지휘 이다윗 목사)이 특별찬양을 함으로써 지역을 뛰어넘는 화합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유관재 목사는 18일 오전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으며, 19일 오전에는 사모세미나가 열렸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빌라델비아교회 임직예배를 마치고 노회 목사들과 임직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열린문’의 보장과 축복을 받으라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32주년기념 임직예배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담임 김혜천 목사)가 설립 32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저녁 기념예배 및 임직식을 가졌다. 임직자는 △장로 최희복 김용연 △집사 김재영 소창원 △권사 백미라 김은숙 등 6인이다.

1부 예배는 김혜천 목사 인도로, 기도 순환권 목사(예사랑교회 담임), 성경봉독 이종학 장로, 말씀 장영춘 목사(윈즈장로교회 원로), 헌금특송 임직자 일동, 봉헌기도 임영건 목사(열린교회 담임)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보장과 축복"(제3:7-13)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거룩하고 진실했던 초대 빌라델비아교회처럼 주님께 칭찬 받는 뉴욕빌라델비아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본문의 '열린문'이 빌라델비아교회의 지침이 되기 바란다"며 "선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려 성숙한 교회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늘 임직을 받은 분들은 평생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강에 있는 나무를 썬어 옮기는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 주님의 전을 위해 옮겨감으로 올바른 기둥의 조건을 갖추라"며 "기둥이 될 나무는 곧고 견고해야 한다. 즉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또한 그 기둥에는 '새에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주님의 소유권을 표현하는 것이다. 교회가 부르면 '예' 하고 바로 달려오는 충직한 제직으로 열린문의 기둥이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2부 임직식은 서약, 안수, 악수례, 공포, 임직패 수여로 진행됐다. 권사 임직은 서약, 임직기도, 공포, 임직패 수여, 헌신기도 김용연 장로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축송, 임직자에게 성찬예식, 권면 임직자에게 이규본 목사(주비전교회 담임)/교인들에게 이영삼 목사(뉴욕중앙선정교회 담임), 축사 김두해 목사(우리주님교회 담임), 임직자들을 위한 축복기도 이종원 목사(뉴욕새사람교회 담임), 기념품 증정, 감사 회복 장로, 광고와 인사 오진남 장로, 축도 허상희 목사(뉴저지성도교회 담임), 만찬기도 정기태 목사(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월례모임에서 최창섭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월례모임 새 부이사장에 최재복 장로 선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지난 6월 월례모임에서 최재복 장로를 새 부이사장에 선임했다. 이외에도 일간지에 홍보 광고를 내기로 결의하는 등 안건을 통과시키고 회계보고를 했다. 부회장 전희수 목사는 7월 월례모임에는 일인당 1명씩 아동결연을 소개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경건회는 임병남 목사의 인도로 기도 전희수 목사, 설교 최창섭 목사, 축도 오태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는 아모스서 8장 11-13절을 본문으로 한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본 4환상은 황충, 불, 다림줄 그리고 여름과실 한 광주리의 심판에 대한 것으로,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심판

하시는가를 모르고 있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북왕국은 말씀이 없어서 기근을 당했다. 이 영적 기근의 원인은 첫째, 백성들이 죄악으로 양심이 마비된 것이며, 둘째는 전하는 자의 문제로, 초점이 맞춰진 말씀으로 깨닫게 하며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종수'시대에 성도들을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박진하 회장의 사회로 진행돼 이상열 사무총장의 업무보고, 안건토의를 한 후 박마이크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동 기구의 7월 모임은 18일(목)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펠리세이즈 파크를 위한 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펠리세이즈 파크를 위한 기도회

뉴저지 한인 최대 밀집지역인 펠리세이즈 파크 시를 위한 기도회가 지난 23일 제임스 로툰도(James Rotundo)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로툰도 시장은 인사말에서 한인교회들이 펠팩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도해준 것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목사들이 시

장을 위해 안수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이준호 목사(임마누엘선교재단 대표)는 "펠팩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중심으로 이번 기도회가 열렸지만 앞으로 지역 교회들이 중심이 돼 각 사별로 기도를 열리는 운동이 전개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임마누엘선교재단)

8.15광복절 타임스퀘어 플래시몹 한국공연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한복판에서 8.15광복절을 기념하는 플래시몹(군중 속에서 갑작스레 공연을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공연방식)이 펼쳐진다. 태권도와 풍물, 합창단, 빅밴드의 연주가 어우러지며 아리랑과 애국가를 노래하는 본 행사는 참가자 100여명 이상이 동원되는 뜻 깊은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본 행사의 참여 단체로는 공연기획사 PlanPlay Inc.(대표: 이종길), 미동부한인학생네트워크 "아라리오"(대표: 임종혁, 안지현, 김미화, 임승민), 코리아태권도(대표: 레지나임), 빅밴드 NYKJO(대표: 정만수, 총무: 장길), 뉴욕한인합창단(대표/지휘: 양재원), Project seven heaven(대표: 서라미), 뉴욕한국문화원, 그리고 Global Leadership Foundation(대표: 배희남)이 함께 하고 있다.

PlanPlay Inc. 이종길 대표는 "함께 모여 한국인의 자부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원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주최측은 지난 20일 프로젝트를 위한 전체 모임을 갖고 이번 프로젝트는 △한인 2, 3세대와 외국인들에게 광복절을 알리며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한국인으로써의 자부심을 되찾게 하고 △인터넷(SNS)을 통해 뉴욕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존재를 세계로 알리고자 하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태권도 퍼포먼스를 위해 코리아태권도 레지나임 대표는 한국문화원을 통해 8.15태권도복 100벌을 지원받아 더욱 행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별히 태권도 시범과 합창 파트에서는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한인들을 더 모집 중이다. 태권도 시범단은 3학년생부터 29세까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합창단원들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플랜플레이(516)978-7526(이메일: info.planplay@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뉴욕장로성기단-후원이사회 합동야유회

뉴욕장로성기단(단장 손성대 장로, 지휘 이정진 장로)과 후원이사회(이사장 김영호 장로)가 지난 23일 오후 알리폰드 파크에서 합동야유회를 갖고 친교를 나눴다. 특히 오는 9월 8일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며 서로 결속을 다짐하고, 부흥과 발전을 기도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성기단)



뉴욕장로성기단 합동야유회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4년 해외 한인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14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 1/8	7.7cm ×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 리스 팅 신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차세대리더 장학금 모금 및 수여식 연장 8월 10일 신청마감, 18일 수여식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와 오펜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가 공동 주최하는 차세대리더 장학금 모금 및 수여식이 오는 8월로 연기됐다.

남가주교협은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20일 정오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시간 식당에서 갖고 일정을 밝혔다. 이날 교협관계자들은 "지난 6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6월 30일에 마감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8월 10일로 접수마감 일자를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

민경엽 목사는 "교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이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차세대 리더 장학금 모금 및 수여식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교회마다 장학금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번에 마련된 차세대 리더 장학금 모금에 대해 지역교회들이 열린 마음으로 협



남가주교협과 OC교협이 공동주최하는 차세대 리더 장학금 모금 및 수여식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조하고 있다. 다음세대를 섬기는 귀한 일인 만큼 앞으로는 한인커뮤니티만이 아닌 흑인, 라티노 등 타 커뮤니티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유철 목사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보듬어 안아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 한인사회 속에 교회의 위상이 긍정적으로 되어지고 좋은 이미지만드는 최선의 방법이 연합"이라고 말하며 "우선 교회들과 성도들이 반응이 긍정적이다.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 감사하다. 이번 일로 인해 한인사회에

모처럼 좋은 파장이 일어나고 좋은 영향력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우니제일교회에서 열린 교회창립31주년 감사콘서트에서 소리엘 지명현 목사와 김인식 목사가 청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다우니제일교회 설립31주년 감사 찬양콘서트 23일 설립감사예배 및 홈커밍데이 행사 등 가져

다우니제일교회(담임 안성복 목사)가 설립 31주년을 맞아 19일 저녁 7시15분 감사 찬양콘서트를 개최했다.

안성복 목사의 시작기도와 출연자 소개로 시작된 이날 콘서트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와 "아름의 축복"을 작곡한 김인식 목사가 무대에 올라 간증과 찬양을 선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며 무대에 오른 지명현 목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소리엘을 결성 창작복음성가제를 통해 현재까지 찬양사역을 이어오며 받은 은혜들을 간증으로 전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내 진정 사모하는", "왜 슬퍼하느냐", "주는 나의" 등을 불렀다.

이어 김인식 목사가 무대에 올라 "이사의 축복", "나의 능력의 주"를 불렀다. 김인식 목사는 "대중가수의 길로 가려고 했다.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찬양사역을 하게 됐다. 주일예배 때 찬양인도를 하면서 예

다. 교협관계자들은 장학금마련을 위해 많은 교회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금된 금액은 광고비를 제외한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장학금 보낼 곳은 남가주교협 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6 과 OC교협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접수마감은 8월 10일(토)까지이며 장학금 수여식은 8월 18일(주) 오후5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경선 목사(213-255-1725)나 송규식 목사(714-699-0210)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터치워십 찬양예배

그리스밸리미니스트리(대표 지명현 목사)가 주관하는 터치워십이 29일(토) 오후 7시 코로나새누리교회에서 개최된다. 찬양사역자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6인조 프로페셔널 연주자들로 구성된 터치워십 밴드가 연주하고 수많은 싱어가 함께 찬양하는 터치워십은 이 시대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길 원하는 순수한 초교파 찬양예배로 한 달에 한번 있는 초교파적인 정기 찬양집회이다.

▲문의: (951)870-3424

사우스베이부모님선교회 7주년 감사예배

사우스베이부모님선교회 7주년 감사예배가 30일(주) 오후5시에 성서장로교회(담임 김병용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강사는 김병용 목사(성서장로교회 담임).

▲문의: (310)515-7207

오바마케어 공개 설명회

금년에 새로 시행하게 되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개설명회(강사 이원준 전도사)가 30일(주) 오후 2시 남가주첫나라이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열린다. 한편 오전11시에는 VIP 새생명 축제의 시간도 있으며, 오전부터 참석할 경우 식사도 제공된다.

▲문의: (714)401-9874

멕시코 아름다운교회 이종무 담임목사 취임

멕시코 아름다운교회 담임 이종무 목사 취임예배가 23일 열렸다. 이날 안수집사 취임식도 있었다.

담임목사 취임식은 임시당회장 박종기 목사(엘피스장로교회 담임)



취임을 마치고 기념촬영. 앞줄 왼쪽 두 번째가 담임 이종무 목사

집례로 시작돼 기도 박기역 목사(멕시코연합교회), 서약 최상철 목사(서중노회장), 권면 조재형 목사(멕시코한인교회), 이종무 목사 담사로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박종기 목사는 요 21:15-17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교회 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이종무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감사를 표하며 "매년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전할 것"이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종무 목사 집례로 최인철, 정재규, 이민복, 정성재 안수집사 취임식을 가졌다. 안수집사를 향한 권면은 모효남 목사(캐레파로반석교회)가, 담사에 최인철 집사, 최치호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제4,444차 두란노 아버지학교 LA목회자 97기가 풀러턴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지를 잃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땐 눈물을 흘리는 등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저녁시간에는 간증과 축복의 시간, 그리고 세족식 등을 하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갈산시에 위치한 센트럴 배티스트교회에서 열린 6.25참전용사 가족 초청 만찬에서 하나인유스오케스트라가 특별연주를 하고 있다

6.25참전용사 및 가족초청 만찬행사 예수제일교회, 하나인교회, 센트럴배티스트교회 공동주최

한인교회와 미국교회가 공동으로 6.25참전 행사를 가졌다.

지난 22일 오후1시 예수제일교회(담임 최요한 목사)와 하나인교회(담임 김창근 목사), 센트럴배티스트교회는 6.25한국전쟁 발발 62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및 가족초청 만찬을 갈산에 위치한 센트럴배티스트교회에서 가졌다.

이날 만찬은 김창근 목사가 찬양인도를 하고 데이빗 벅스 목사(센트럴배티스트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이어 6.25한국전쟁 영상 프리젠테이션과 하나인유스오케스트라의 공연, 그리고 선물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최요한 목사는 "사우스베이 지역커뮤니티를 위해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던 중 6.25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행사여서 조촐하게 준비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과 연합해 지역사회를 위한 행

사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근 목사는 "한국전쟁 시 우리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마침 저희교회 청소년들을 비롯한 차세대 친구들이 조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으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학교 성료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17일과 18일 그리고 23일에 풀러턴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렸다. 아버지학교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 가정의 목자,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

려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운동을 펼쳐 나가는 비전을 갖고 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제9기 LA 목회자아버지학교는 2000년 처음 열린 이래 4,444번째로 열렸다. 23일 마지막 날 순서에서는 찬양, 기

도, 아버지학교 영상시청, 인사 및 구조제작 및 조별 구조 제작, 조별 나눔 등으로 이어졌다.

조별 나눔에서는 특별히 가족들을 초청해 진행했다. 아버지학교는 매일 과제물이 주어지는데 아내와 자녀들에게 편지쓰기, 아내와 데이트하기,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적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편지 받아주기 등의 과제가 주어졌고 이날 아내와 자녀들과 편지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편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매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정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러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6·25동란 63년·정전 60주년...

교계, 나라사랑·참전용사 보은행사 잇따라

한국전쟁 63주년 및 정전 6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를 위로하고 나라 사랑을 다짐하는 교계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주일예배와 새벽기도회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 국가 지도자를 위해 부르짖는 한국교회의 나라사랑 정신이 6·25를 전후해 적극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3일 주일 2부예배에서 '6·25 제63주년 참전용사 감사패 수여식'을 갖고 교회 내 참전용사 295명에게 3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총 1억원을 지원했다. 또 이들 가운데 지난해 감사패를 받지 못한 104명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영훈 목사는 "역사의식은 우리를 불멸시키고 민족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국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비참했던 대한민국의 과거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셨다"면서 "앞으로도 교회 내 6·25 참전용사가 생존하는 동안 매년 행사를 통해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리며 격려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배 후 성도

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교회는 지난해에도 참전용사 206명을 격려한 바 있으며, 지난 16일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소속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4명에게 격려금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도 23일 오후 제63회 한국전쟁 상기 및 6·25 참전유공자 초청 보은행사를 가졌다. 교회는 6·25 참전용사 250여명을 초청해 보은 감사예배를 드리고 격려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소강석 목사는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운 시대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호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 희생에 감사하며 자그만 정성이나마 감사와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교회는 다음 달 25-30일 경기도와 함께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터키 등 5개국의 6·25 참전용사와 가족 110여명을 초청해 '정전 60주년 기념 보은행사'를 연다. 특히 당시 중공군과 소련군 참전 용사도 함께 초청해 '화해의 장' 행사를 열 계획이

어서 관심을 모은다. 참전 용사들은 관문점과 국립현충원, 전쟁기념관, 한미연합사와 평택2합대 등을 방문한다. 이들의 항공비와 체류비 등 비용일체는 교회가 지원한다.

(새민족복합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도 24-28일 경기도 남양주 수동기도원 임마누엘 성전에서 '6·25 나라사랑 호국연합 대성회'를 연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라'(사 60:1)를 주제로 나라사랑을 다짐한다.

한편 전국 1004개 군인교회 1만 3500여명의 기독교 장병들은 20-22일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에서 '6·25상기 기독교장병국성회'를 갖고 국가안보와 군복음화를 위해 간구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제 아래 열린 성회에서 장병들은 관선희 한국 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과 이영훈 장경동 흥성목사 등의 설교를 들으며 군복음화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인연합회가 주최한 성회에는 육군대장 권오성 안수선사와 육군교장 황인우 장로, 한국군종목사단장 이호열 목사 등 기독교 장교들이 다수 참석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성명을 내고 "올해가 정전 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이니만큼 이제는 전쟁의 어두움을 딛고 일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가 통일 되는 길은 기독교적 방법밖에 없다"

'황장엽 전 비서의 신앙 이야기' 증언 잇따라

2010년 사망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생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선애(89) 장신대 명예교수는 20일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황 전 비서가 생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실을 공개했다. 평양이 고향인 주 교수는 황 전 비서를 2002년쯤 처음 만났다.

여고 동창모임에서 동향 출신이면서 주 교수보다 한 살 많은 황 전 비서를 만나보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 주 교수는 황 전 비서를 만난 뒤 안가에서 쓸쓸히 사는 그를 도우며 전도하기로 결심했다. 황 전 비서는 사망하기 전날인 2010년 10월 9일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오전 8시30분쯤 주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했다.

주 교수는 "황 선생님이 생전에 신앙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 출석한 것도 아닌데 자꾸 믿음을 감추는 것만 같았다"면서 "어느 날 직접 기도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거짓 믿음은 아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주 교수에 따르면 황 전 비서는 2006년쯤 당시 생존해 있던 하용

조 은누리교회 목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문안을 갔다. 그 때 목사로부터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주 교수는 그때 황 전 비서의 육성 기도를 처음 들었다. 그는 "황 전 비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면서 기도를 마치더라고요. 아주 매끄럽게"라고 말했다.

황 전 비서는 생전에 한반도가 통일되는 길은 기독교적 방법밖에 없다며 줄곧 이야기해 왔다는 사실도 주 교수는 소개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임창호(부산장대교회 담임) 목사도 이날 황 전 비서의 신앙 이야기가 담긴 동영상 CGN TV를 통해 공개했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11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김현식(81) 조지메이슨대 북한학 연구 교수가 등장한다.

그는 지난달 10일 업무차 방한, 임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황장엽 전 비서가 탈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기 김현식 선생처럼 앞으로 다 예수 믿어야 한다. 나는 세상이 다 아는 유훈론자다. 갑자기 황장엽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정신이 돌았구

나 할 거다'라고 말했다"면서 황 전 비서의 생전 발언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대표적 교수양성기관인 평양사범대(현 김형직 사범대)에서 1950년대 초부터 40년 가까이 러시아어 교수로 근무한 '북한의 엘리트'였다. 김일성의 눈에 들어 김일성 처가 쪽 자녀들과 김정일의 가정교사로 활동했다. 그가 황 전 비서를 처음 만난 건 1985년 봄, 러시아 공산당 책임자들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중앙당 국제비서였던 황 전 비서의 통역을 맡으면서였다.

그들이 재회한 건 97년 황 전 비서가 한국으로 망명한 직후였다. 92년 러시아를 통해 탈북, 서울에 거주하던 김 교수는 2003년 도미(渡美)하기 전까지 황 전 비서와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 당시에도 황 전 비서는 "김일성 패밀리가 사라지면 북한 사람들의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허무함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한다. 그게 기독교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임 목사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뼈대를 만들고 가르치고 전파했던 철저한 유훈론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라며 "북한주민이나 탈북자들은 신앙을 갖기 힘들다는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천지 복음방 교육을 해부한다

(1) 성경공부 필요성 심기

[미션라이프]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은 올해 소위 '신천기(新天紀)' 30년을 맞아 신도 수 14만4000명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예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신천지의 거짓말 포교 전략이 워낙 치밀한 데다 피해자들이 복음방(2개월)과 초등과정(2개월)을 거쳐 중등과정으로 넘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일보 17일 신천지의 '복음방 교육 노트'를 단독 입수, 한국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핵심을 추려 4회에 나눠 보도한다.

성도들에 "그동안 성경에 무지했다"는 느낌 들게한 후 사전에 짜놓은 치밀한 각본대로 거짓 성경공부

68쪽 분량의 '복음방 교육 노트'에 따르면 신천지는 기존 교회 성도들의 구원관을 갈아엎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공격적 자세를 갖게 만든 뒤 배타적 교리를 주입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밀교(密敎) 성격이 짙은 신천지는 그동안 4단계 24개 과로 구성된 복음방 커리큘럼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

신천지는 1단계 교육(1~5과)을 통해 성도들에게 '그동안 성경에 무지했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거짓 성경공부의 필요성을 극대화시킨다. 이 때 성도들은 신천지가 자신의 행편에 맞게 사전에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인 줄도 모르고 성경공부를 하며 그 과정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착각한다. 가짜 목사, 사모, 부목사, 선교사, 간사, 상담사, 신학생 행세를 하는 복음방 교사는 성경 구절과 정통교회 신학 이론을 교묘히 섞어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낮춘다.

1과는 '성경의 기본 상식'인데 성경 66권 분류, 총 장수, 총 절수, 기록자 수 등은 정통교회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 내용들은 정통교리와 100% 다른 것이다.

신천지는 성경 내용을 '역사-교

훈-예언-성취'로 나누고 성경역사가 '아담 부패→노아 출현→아담 세계 멸망→노아의 세계·가나안 부패→모세 출현→노아의 세계 멸망→모세·유적 이스라엘 세계 부패→예수님 출현→유적 이스라엘 멸망→예수님의 초림 복음시대·부패→예수님 출현→초림 영적 이스라엘 멸망' 등 12개로 구분돼 있다고 가르친다. 이는 시대별 구원자를 내세우기 위한 포석으로 마지막 시대 다른 이름의 구

- 신천지 복음방 교육 1단계**
- 1과 성경의 기본상식
 - 성경의 기록
 - 성경의 내용 분류
 - 성경의 구분
 - 언약서
 - 성경의 역사적 구분
 - 2과 시대구분
 - 창세시대
 - 율법시대
 - 사사시대
 - 왕권시대
 - 선지시대
 - 예수 초림 복음시대
 - 사신시대
 - 계시록 완성시대
 - 3과 종교
 - 종교의 의미
 - 종교의 특성
 - 4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할 이유
 - 사람의 죄로 떠나가신 하나님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 5과 예언과 성취
 - 시대별 예언과 성취
 - 성취 때의 믿음

원자를 내세우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다. 신구약 모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언급하는 성경 진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과는 시대구분이다. 신천지는 성경 6000년 역사가 8개 시대로 나뉘어 있다고 가르친다. 구약과 신약밖에 없는 시대를 굳이 8개로 쪼개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활용해서 삼시대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신구약 외에 계시록시대를 만들어야 예수님과 동격인 교주를 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리에 약한 성도들은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계시록 완성시대에 살고 있으며, 신약의 예언(4복음서+요한계시록)은 봉합돼 있기 때문에 예언을 알아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신천지의 뒀에 빠져든다.

3과는 '종교다. 불교, 유교, 기독교에 각각 경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그 계획을 경서(經書)에 담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천지는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우월하며 참 믿음은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된다"고 가르친다.

4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할 이유인데 여기에서 신천지는 구원의 '요섭'을 추가한다. 이들은 "구원은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을 알고 지킬 때 있다"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새 언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죄 사함이 없다"고 경고한다.

5과는 '예언과 성취'다. 신천지는 시대별 예언과 성취 사례를 제시하며 "하나님이 시대마다 예언하고 성취해 왔다"면서 "재림의 때를 사는 우리들은 신약의 예언을 알고 깨닫는 신앙인이 되자"며 성경공부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한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은 "성도들에게 복음방 교육 커리큘럼을 미리 숙지시키고 비슷한 성경공부를 경험한 경우 즉각 교회와 지역교회연합회에 신고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의의 교통사고 방호원 선교사 일가족

4명 빈소 국내에 마련... 두 딸은 현지 치료 중

사역지로 향하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방호원·김윤숙 선교사 등 일가족 4명의 빈소가 23일 국내에 마련됐다.

충남 천안시 삼봉동 고려신학대학원 강의동 102호에 차려진 빈소에는 오후 3시 조문이 시작되자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 교회 목회자 및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고인 추모예배는 인터서브코리아 주관으로 이날 저녁 드려진 데 이어 예정고신 세계선교회가 24일 오후 5시 한 차례 더 집례한다. 25일 오후 1시에는 방 선교사 신대원 동교회 주관으로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하늘공원 기독교 추모관에서 고인들의 유골 일부를 안치한다.

방호원(45·인터서브코리아 파송) 선교사 가족은 지난 18일 캄보디아 중부 캄퐁툼 지역에서 마주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방 선교사와 아내 김윤숙(47) 선교사, 둘째 현율(9)군, 셋째 다현(7)양 등 4명과 대만인 관광객 등 12명이 사망했다.

방 선교사는 2000년 고신대 신대원을 마친 뒤 코람테오선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으로 목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대구 북덕동 대현교회(예장고신) 등지에서 부교역자로 섬긴 뒤 경남 거창의 가지리교회에서 단독목회를 했다. 방 선교사 아

내인 김 선교사는 예수전도단에서 선교훈련을 받으며 선교사의 꿈을 키워왔다.

방 선교사 가족은 2009년 인터서브코리아 선교사로 정식 임명받아 2011년 2월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현지 언어과정 등 적응훈련을 마친 뒤 사역지를 씨엠플리로 정하고 이삿집을 싸 현지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새로 동지를 틀 사역지에서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 개척과 더불어 어린이 이동도서관 사역을 구상 중이었다.

앞서 방 선교사 등 일가족 4명의 유해는 지난 21일 화장을 해 캄보디아 메콩강에 뿌려졌다. 생존자인 첫째 딸은 (11)양과 막내 다정(3)양은 캄보디아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귀국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모나리자

스킨 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출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1회 \$45	10회 \$400

(Special 기계)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 신도 <input type="checkbox"/>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본사방문/

‘한슈나이더국제어린이재단’ 후원 Peace Concert

7월 12일 오후 7시30분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오는 7월 12일(금) 오후 7시30분 코리안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라크마(한인음악인협회, 단장 최승호) 협연으로 ‘한슈나이더국제어린이재단’ 후원 ‘Peace Concert’가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다인종 음악인들이 함께 준비하는 이 콘서트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돕고 한국전 휴전60주년을 기념하게 될 뜻 깊은 음악회이다. 평화 콘서트 지휘를 맡고 있는 윤임상 교수와 한슈나이더국제어린이재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더한 씨가 본사를 방문, 금번 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본지를 방문한 윤임상지휘자(좌)와 아더 한 대표(우)

사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 한상만 집사는 한국전쟁 때 가족과 헤어져 고아로 1961년 아서 슈나이더 박사 가정에 입양돼 성장했으며 교수가 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던 중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합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2010년부터 난민(특히 북한고아들)들의 미국 입양 법안 통과를 위해 자신의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 2013년 1월27일 법안이 통과됐으나 한상만 집사는 2012년 7월 21일 지병으로 소천 했다.

사역에 헌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번 콘서트에서는 공연에 앞서 6.25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생존에 있는 6.25전쟁 참전자들을 초청, 위로 감사하는 특별순서도 있다.

평화콘서트 프로그램에 관해 윤임상 교수는 “대표 곡은 베르디의 레퀴엠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베르디의 레퀴엠은 서양음악사에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지요. 강렬하면서도 웅장하고 호소력 있는 독창의 선율과 드라마틱한 표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인교향악단은 미주 내 한인 전문연주단체로 미주 이민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미주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체로 한인의 음악문화를 전파하는 기능과 자선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입을 여는 윤임상 교수(지휘

코리안필하모니오케스트라·라크마 협연 지휘 윤임상 교수...6개국 다민족 음악인 참여

자, 월트디즈니대학 음악교수)는 6년 전부터 필하모니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필하모니 사역 외에 윤 교수가 라크마(LAKMA-LA한인음악협회)를 창단한 것은 지난해, 월트디즈니대학 제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해 현재 단원은 30여명이다. 이들은 필하모니 단원들과 세계 각지에서 모인 시즌 멤버들과 함께 디즈니콘서트홀에 서게 된다.

윤 교수는 “이번 콘서트를 월트디즈니홀에서 하게 된 데는 라크마 최승호 단장의 힘이 크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라크마의 기본 미션은 최승호 단장의 ‘남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삶의 철학이 담겨있다. 환원 마인드에서 콘서트를 통해 자선단체를 돕고 있다. 지난해는 피해여성을 돕기 위해 한인가정상담소 후원 콘서트를 열었고 올해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돕는다.

윤 교수와 함께 자리한 아더한 대표는 ‘한슈나이더국제어린이재단’에 대해 소개했다.

한슈나이더재단은 고 한상만(미국명 샘 한, 전 대표) 집

이에 막내아들 아더한 씨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슈나이더재단을 이끌어가고 있다.

“아빠가 있을 때는 커넥션이 좋았고 한국말, 영어에 문제 없고 친구들도 많아 재단을 이끌어 가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맡고부터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가느라 어려움이 많습다. 그러나 라크마와 같은 좋은 단체에서 힘이 돼주고 있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슈나이더재단에서는 캄보디아와 탄자니아에 고아원을 설립해 식량보급을 하고 있으며 북한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또 상하이로터리클럽과 함께 상하이 어린이들을 돌볼 ‘상하이 프로젝트 2013’을 추진 중에 있다.

평화콘서트의 참가 인원은 100여명 정도. 기존 멤버들을 제외한 시즌 멤버들은 각지에서 참여한다. 한인뿐만 아니라 백인, 중국계, 일본계, 필리핀 등 6개국 다인종이 모여 음악을 통해 비영리단체를 돕는 이

현! 아마 연주회 내내 오페라를 보는 듯 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태리는 베르디 탄생 200주년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지요. 시기에 걸맞는 아름다운 콘서트가 될 것이며 국내외적으로 수준 있는 콘서트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중앙대 성악과를 졸업한 뒤 도미, USC에서 MM(합창지휘), 시카고 아메리칸 콘서버터리에서 DMA(지휘)를 마쳤다. 또한 아주사 퍼시픽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해 신학적 바탕에 음악을 접목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우수한 지휘자들을 키워내고 있다.

또 이번 콘서트에는 소프라노 이영미,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Robert Macneil, 베이스 김영복 등이 참여하게 되며 그 외에도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평화 콘서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213)270-5010 하면 된다. 한슈나이더재단

ahan@han-schneider.org (이성자 기자)

선교 편지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포장된 곳이 없습다. 비가 오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때가 되면 늘 날씨에 민감하게 됩니다. 기상예보가 되지만 지역 특성상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지난 번 뉴욕에서 오신 단기선교팀과 함께 깊은 산골에서 사역을 했는데 매일 비가 와서 한 두 시간을 진흙탕 길을 걸어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지요. 결국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근 지역에서 길 공사하는 불도저가 차를 산 정상까지 끌어주어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

온두라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십 수 년을 살면서 그렇게 느끼진 못하지만, 전에 비해서 강도, 살인, 교통사고 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온두라스는 남미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중간 기착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있어서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평화스럽던 지역들이 위험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 대표적인 갱단인 MS와 18그룹이 서로 살상하지 말자는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두 집단 사이의 협정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민간인들도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다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두 번(오전6:30, 10:00) 말씀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네요. 지금은 열왕기하를 마쳐 갑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최근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렌카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권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분들이지요. 타운이나 도심권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이요. 말씀이 이들의 삶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므로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해오던 문화적 관습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며 옛 습성인 육체의 소욕으로 빠지는 경우도 생기네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갈5:17). 앞으로 이들이 성령 가운데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많은 사역으로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한 때는 “

로템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간구하며 지나기도 했지요. “외과의사가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는데 환자는 죽었다” 하는 말이 제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아 사역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세미한 주의 음성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 없는 사역이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큰 건물을 짓는 데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이 산속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살으라”는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6월 22일)은 장모님 필순 잔치가 있는 날인데 저만 이곳에 남아있네요. 즐거운 잔치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둘째 명건(Joshua)이와 셋째 유건(Caleb)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을 시카고에서 텍사스 엘 Paso를 거쳐 온두라스로 온 것이 그것과 같은데 대학을 졸업하였네요. 이들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밝게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희건(Timothy)이가 올해 일리노이주립대학에 입학하게 되며, 막내 해진(Joyce)이는 고등학교 11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유진(Eunice)이는 영어교사로 2년을 은혜가운데 잘 마치고, 7월 10일 중국 단기선교를 떠납니다. 1-2년 교사 경험을 더 쌓은 후에 교사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단기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5월, 6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 사역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축복해주셨습니다.

■ 세이비타 교회 건축: 캐나다 한 사랑교회에서 후원해주셔서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흙벽돌, 기초를 위한 자재, 목재들이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무리 되는 시기에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월 27-30일 이곳을 방문하여 말씀을 나누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뉴욕맨하탄선교교회에서 지난 5월 25-31일에 오셔서 세이비타교회, 인근의 아구아칼리엔테, 쿠루시타 지역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아자꾸알파, 몽케카구아 교회 제자훈련: 아자꾸알파교회와 몽케카구아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세례 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주일과 토요일에 훈련을 하고 있으며, 몽케카구아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16명에게 세례공부

를 잘 마쳤습니다. ■ 치과 의료진료: 산페드로술라에서 사역하시는 홍삼열 선교사님께서 5월 4-5일 현지 치과의사(Luis, Shelley, Melissa)들이 오셔서 아자꾸알파와 몽케카구아 교회에서 치과진료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 결혼 세미나: 지난 5월 4일 결혼 세미나를 8가정 부부들을 중심으로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세미나를 마친 후 여러 문화적 관습들(혼외관계 및 임신 등)로 인하여 고민하고 말씀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철야기도회: 지난 6월 6일 몬테베르데 지역에서 지역 3교회가 연합하여 철야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가운데 감격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여명이 모여서 오후 6시 부터 시작하여 새벽 3시 까지 9시간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 3월에는 몬테베르데 지역 전도집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 여자세학교(아자꾸알파, 몽케카구아): 지난 3개월 동안 공부하던 여자세학교는 6월 7일 종강식을 마치고 방학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등록을 시작하여 7월 8일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학기에 모든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영성을 가진 지도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Con Cristo sembrando hoy, y cosecharas mañana”

■ 장학금 전달: 시카고 장학재단에서 올해도 다섯 아이들(Fatima, Fred, Lendy, Keny, Lesly)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학교가 시작되면 장학금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락빌장로교회와 두란노침례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뉴욕맨하탄선교교회 방문 및 단기선교: 지난 5월 12일 뉴욕맨하탄선교교회(최재원 목사)에서 말씀을 전하고 단기선교준비를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흔 아이들 졸업식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귀한 교회를 만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최고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세이비타, 쿠루시타, 아구아칼리엔테를 방문하여 우기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불도저로 차를 산 정상에 끌어주어서 예정대로 미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 진술 자매, 상호, 혜은, 시진, 섬, 성원, 지원 수정 부부, 유진, 복근, 카로리나, 명선 형제자매님 감사하며 최재원 목사님, 그리고 강다윗 선교사님 그리고 아이들(제시카, 우림, 조나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장세균 선교사 드림 이메일: segyunjang@gmail.com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신규주문서적을 포함한
모든 서적!!!!!!

SALE

잡지, CD 등 일부품목 제외

40%

+ TAX

문의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베스트셀러
최신간 포함

40% SALE

저희 한국서적에서는 책자 만드실 분들께 한국에서 제작하여 뉴욕으로 배송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 납품해 드립니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37)

5. 보수적-복음적 기독교 교육 (Conservative-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은 우리 한인교회들의 보수적-복음적 기독교 교육의 또 다른 강점인 "제자도 교육 혹은 제자도를 강조하는 교육(Discipleship Education)"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제자도 교육(제자도를 강조하는 교육(Discipleship Educ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자도"(discipleship)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도(Discipleship)라는 것은 성경말씀으로부터 나온, 우리들의 성도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테마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상태(the state of following Jesus Chris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이끌고 돌며 하며 돕는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교육의 기본 성격은 모든 지체들이 자신들의 신앙고백과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즉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체들이 우선 그 전파하고자 하는 바 즉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의해 먼저 제자가 되어 확신을 갖고, 이어서 그 증거 할 바를 다른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증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을 쌓고, 더하여 그 전할 바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실제적 실천이 담보하게 되는 데까지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제자도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소명이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지라도 말합니다.

보수적-복음적 신학은 우리가 값싼 은총이 아닌 성숙하고 헌신된 삶의 실천을 강조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복음의 소유가 아닌 받은 복음을 부지런히 아낌없이 모두에게 전하는 복음의 공의를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한인 교회교육의 현재적 사역이자 미래적 지향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 한계와 관계없이, 보수적-복음적 신학에 입각한 우리 한인 교회들의 교육사역의 방향과 목적은 분명히 제자도를 강조하는 교육이며 또한 이에 대한 확실한 지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보다 진취적인 행보가 요구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자도 교

"제자도 교육-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상태" 강조 당장 열매 있건 없건 전도/선교에 열의와 열성적 실천

도를 따르는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복음서에서 나타난 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증거된 바대로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자도란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하신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 실천함을 통해 그 복음을 확증하는 것으로 구현됩니다.

이때, "제자도 교육(제자도를 강조하는 교육(Discipleship Education))"이라 함은, 우리 사역자들이 그 섬기는 지체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who make disciples)이 되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름받았음과 그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숙하고 또 실천해야 함을 깨닫게 하며, 실제적으로 그 배우고 성

면,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한 예가 한국의 보수적 복음적 교회들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자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이야기에서 보수적-복음적 교육의 개선점들을 다룰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위와 같은 제자도 교육이야말로 사실, 지난 이야기에서 살핀 성경중심적 교육의 한 모습 혹은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누가(who), 누구에게(whom), 무엇을(what), 왜(why), 어디서(where), 언제(when) 그리고 어떻게(how) 교육 하거나 그에 대한 대답들이 모두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제자도 자체가 참으로 성경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선, 우리 한인교회가 가진 보수적-복음적 신앙과 신학이 분명히 그 교육에서 제자도를 강조하도록 했음에 이견이 없는 한, 제자도 교육은 참으로 우리 한인교회의 보수적-복음적 교육이 지닌 강점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상 각각의 우리 한인교회들이 그 현실적 사역에서 제자도를 강조하는 교육을 열매나, 그리고 열매나

육이 우리 한인교회들의 실제 모습이 자 그 보수적 복음적 교육의 강점이라는 것은 우리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전통인 열정적인 전도와 선교의 실행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인교회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과 그 열정적 실천은 사실 "우리에게 열매가 당장 있건 없건 상관없이 끝까지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 살아야 할 소명이 있다"는 제자도의 의미가 현실에서 구체화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도 교육과 전도/선교의 실천사이의 연결고리가 그 사역들에서 얼마만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우리 한인 교회의 전도/선교에 대한 열의와 열성적 실천의 근거에는 보수적-복음적 신학 및 신앙 그리고 이에 근거한 제자도 교육의 정신이 그 토대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더욱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제자도 교육에 대한 지향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재차 확인하여 제자 삼는 일에 은혜로운 결실을 실로 풍성하게 맺는 사역들을 일구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는 바입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요13:31-3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죄로 일그러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비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함으로 공의로우심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는 죄는 목이며 간과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며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며 그 공의를 통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 그리고 죄를 향한 공의와 심판이 동시에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향한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 그리고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전혀 모순 없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화 새 계명, 사랑(요13:33-3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계명입니다. 구약에 이미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레19:18). 하지만 구약의 이웃사랑은 철저히 혈연적, 공동체적 관계(a fellow Israelite)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사랑은 혈연적, 공동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며, 노예들을 위한 사랑이며, 원수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지경

이 넓어지며 이웃의 한계가 없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도 이전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깊이의 수준으로 야만인과 같은 이방인까지 덮고도 남을 측량할 수 없는 범위의 수준으로 사랑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게 된 새 계명입니다.

수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요13:33-34)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요일4:7-8).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divine character)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하고 계신 신적 행위이기도 합니다(divine activity).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셨던 것처럼

지금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다시 보내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을 잃은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목 제자의 증표, 사랑(요13:35)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 증거의 방법은 세상 법정과 다릅니다. 법정에서의 증인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증인으로서의 예수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스스로를 제자라고 말하기보다, 서로를 충실히 사랑하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제자들 서로가 진심으로 아끼고 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한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은 전도를 위한 전략적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어린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마추한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금 실수투성이 베드로(요13:36-38)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의 호기있는 다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참히 무너집니다. 베드로의 다짐은 허풍이 아닌 진심이 담긴 다짐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충정을 믿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기질이 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담담히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교만을 꺾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시험에 빠지는 존재

인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존재임을 말해 줍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케 하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해 초대교회가 기억하는 계마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수를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토 역설의 진리, 강할 때 약함(요13:36-38)

베드로의 실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지나친 자신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지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충성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충성심의 발로가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가 아닌, 자기 자신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기기지에서 나온 충성심은 어린 여자의 물음에도 꺾일 정도로 허약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은 스스로가 갖고 있는 능력의 강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에서 나온 강함은 정말로 나약할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의 강함에 의지할 때 믿음의 강함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Columns include church names like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금관교회', etc., and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할렐루야 2013 대뉴욕복음화대회

Hallelujah New York Evangelization Conference

“심령을 새롭게!”

일시 : 2013년 7월 12일(금)~13일(토) 7:30pm,
14일(주일) 5:30pm

장소 :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Colden Auditorium
65-30 Kissena Blvd, Flushing, NY 11367

주최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
Tel. 718-358-0074, 4428 / Fax. 718-321-0105
www.nyckcg.org / e-mail: nyckcg@gmail.com

강사: 양병희 목사
(서울 영안장로교회 당회장)

서울 차량운행 시간표

- 출발장소 플러싱(공용주차장/산수갑산1맞은편)
베이사이드(BBCN BANK)
엘머스트(뉴욕종합식품점)
- 출발시간 7/12(금)~7/13(토) 오후 6:20, 6:40, 7:00
7/14(주일) 오후 4:20, 4:40, 5:00



어린이 복음화대회

- 일시 7월 12일(금)-13일(토) 7:30pm
14일(주일) 5:30pm
- 강사 정승환 목사 (Sam Chung)
퀸즈한인교회 교육목사



청소년 복음화대회 Hallelujah Youth Rally

- 일시 9월 6일(금)-7일(토) 7:00pm
- 장소 뉴욕 신광교회 (한재홍 목사 시무)
- 강사 Rev. Jason Kim
(New Vision Church, San Jose, CA)



목회자/사모 세미나

- 일시 7월 15일(월) 9:00am
- 장소 금강산(플러싱)
- 강사 양병희 목사 (목회자세미나)
- 강사 이해옥 사모 (사모세미나)

고문

김해중 목사, 장영춘 목사, 박희소 목사, 이문구 목사, 김용걸 신부,
김상모 목사, 김정국 목사, 양희철 목사, 장석진 목사, 방지각 목사,
김남수 목사, 한재홍 목사, 한세원 목사, 박수복 목사, 최웅렬 목사,
안창의 목사, 송병기 목사, 황경일 목사, 김영식 목사, 허 걸 목사,
김중덕 목사, 이병홍 목사, 정수명 목사, 활동익 목사, 최창섭 목사,
신현택 목사, 김원기 목사, 양승호 목사(회기순)

- 대회장 김중훈 목사
- 부대회장 김승희 목사 / 이대연 장로
- 총무 현영갑 목사(347-538-1785)
- 서기 장경혜 목사(917-825-5204)
- 준비위원장 김수태 목사(646-623-4551)